

박 용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학력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나타난 주체성 모순의 양상 연구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류 연 희

고학력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나타난 주체성 모순의 양상 연구

박용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류연희

인 준 서

류연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활동참여율의 증가로 인한 초혼 연령상승과 독신 여성 증가 추세 속에서 결혼을 희망하는 대졸학력 이상 여성들의 결혼관에 관한 논문이다. 사회변화 추세 속에서도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혼을 희망하게 되며, 결혼을 토대로 형성되는 가족제도 안에서의 성역할 및 사회활동 지속에 관한 인식, 그리고 가족 경험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에 대한 미혼여성의 가치관에 대한 분석이 연구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대졸학력 이상의 미혼여성 13명을 인터뷰 하였다. 젊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에 맞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가치관과, 내재된 가부장적 문화요소가 대립하는 모순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미혼여성들의 결혼 선택은 나이가 들면서 당위로서 인식하는 결혼관과 주변환경에서 의식화된 결혼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독신여성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외로움에 대한 대비로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를 필요로 인생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모든 조건에서 자신보다 우위의 남성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이 있어 상대적으로 비주체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결혼제도에 진입하지 않은 미혼여성의 성에 있어 보수적인 사회의 영향으로 미혼 여성들 또한 자신의 섹슈얼리티 욕구를 표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신과 타인에게 이중적인 성윤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역할 중 출산은 당연성으로 인식하지만 그것이 육아에 관한

인식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육아에 있어 어머니 역할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였다. 하지만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남성과 분담을 당당히 요구하거나 대체인력을 이용하겠다고 말하였다.

사회활동 지속은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 가족경험 중에서 부모의 경험은 미혼여성들의 결혼관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모두 어머니의 결혼생활은 희생과 인내로 대변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동시에 어머니와 같은 삶을 거부하는 모습을 강하게 나타냈다. 성장과정 내에서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억압적인 결혼 생활은 결혼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여성들은 결혼에 있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참여하기 보다는 사회의 전반적인 결혼문화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결혼을 희망하기 때문에 의존적이고 비주체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 제도 내부에서 지속되는 역할에 관한 부분에도 모순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미혼여성들은 결혼과 더불어 출산을 필수로 인식하고, 동시에 사회활동 지속을 희망하므로, 그에 따른 육아시설의 지원과 기혼 여성에게 상당부분 책임전가 되어온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혼여성들 또한 결혼에 있어 비현실적인 기대와 동경,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의존성을 지양하고, 모순적인 요소들에 대한 개념 정리와 자신의 능력에 기반을 둔 주체성의 확립이 결혼관에 요구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3
II. 연구배경	8
1. 선행연구 검토	8
2. 이론적 배경	12
1) 전통적 결혼제도	12
2)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적 역할의 변화	19
III. 결혼수용 과정에서의 여성 주체성의 모순	26
1. 결혼 결정 계기	26
1) 당위로서의 결혼관	26
2) 주변환경의 영향	30
2. 가족(부모)경험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36
1) 긍정적 투영으로서의 영향	37
2) 부정적 투영으로서의 영향	41
3. 배우자 선택의 비주체성	48
1) 배우자 선택의 비주체적 조건	49
2) 연애와 증매	54

IV. 섹슈얼리티와 성역할 인식	62
1. 미혼여성의 섹슈얼리티	62
1) 혼전성관계에 관한 인식	63
2) 동거에 관한 인식	68
2. 성역할 인식	70
1)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71
2) 육아에 관한 인식	73
3) 가사노동에 관한 인식	77
V. 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인식	82
1. 결혼 비용의 지원 : 자립 혹은 의존	82
2. 사회활동 지속의 당연성	85
VI. 결론	87
1. 요약 및 논의	87
2. 결혼을 위한 제언	88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7
<표 2>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23

그 림 목 차

<그림 1> 여성의 초혼 연령 구성비	20
<그림 2> 여학생 대학진학율	21
<그림 3>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4

I. 서론

1. 연구목적

사회나 가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초혼 평균 연령대¹⁾의 여성들에게 결혼제도를 통한 성역할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예전의 시대와는 달리 결혼을 필수조건으로 여기기보다는 선택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결혼 후 전업주부의 역할보다는 사회경제활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경제적 자립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혼은 가장 오래된 사회제도의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결혼은 남녀 간에 사랑하는 관계이상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며 동거와 달리 법적인 행동이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쉽게 반복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결혼은 두 남녀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결합을 뜻하며 두 남녀 개인의 만남으로 시작되어 이루어지지만 생식행위를 통한 재생산 기능, 성욕욕구 충족과 성적통제를 통한 사회의 질서 유지 기능, 양가 가족의 교류를 통한 사회통합의 확장기능, 사회적 공인의 기능을 갖는다(김태현, 2002).

과거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성인이 결혼을 필수로 여기고 살았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바뀌어 가면서 결혼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이기숙 외, 2001). 현대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 가족

1) 통계청(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05년 여성·남성의 평균초혼 연령은 여성 27.7세, 남성 30.9세로 남성이 여성보다 3.2세 많으며, 2004년 초혼연령(여성 27.5세, 남성 30.6세)보다 여성은 0.2세, 0.3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내용에서 말하는 연령대의 여성은 2005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인 27.7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연령의 여성에게 사회가 결혼을 통한 성역할을 요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2006년 통계자료 발표에 따른 혼인 및 이혼현황을 보면 2005년 한 해 동안 혼인은 316,375건, 이혼은 128,468건으로 혼인은 2004년 310,944건보다 5,431건 증가하였고, 이혼은 2004년 139,365건보다 10,897건 감소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활동이 증가하여 만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미혼 여성의 초혼이 늦어지거나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미혼여성들의 결혼연령 상승과 출산거부로 인한 저출산 현상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진행한 「저출산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미혼 남성이 71.4%, 미혼 여성이 49.2%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지난 98년 63.3%에서 2005년 49.2%로 크게 낮아져 과거에 비해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미혼남녀의 결혼관”, 동아일보 2006년 3월 23일자).

그러나 결혼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나 독신가정을 희망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다.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고 전통적인 가족주의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결혼을 희망하고 있는 여성들은 상당수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의 결혼정보회사를 비롯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혼여성들이 희망하는 결혼 조건에 관한 통계자료²⁾를 보면 여성들은 여전히 불가능

2) 「주간한국」이 창간 41주년 특집으로 결혼정보업체 ‘선우’와 공동으로 ‘2005 한국 여성의 현주소’라는 설문조사를 2005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선우’에 가입한 미혼여성

하지만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거나 혹은 배우자 선택 기준에서 배우자의 직업의 안정성 등, 경제력을 가장 중요시 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여성들은 자신의 경력개발이나 경제활동 보다는 배우자인 남성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결혼관에 반영되어 있다.

결혼제도 밖의 동거,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한 만혼, 독신 여성증가 추세에 미루어보아 여성들의 결혼관이 정말 변화 되어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변화된 새로운 가치관은 결혼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자 하는 의문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첫째, 결혼 결정 계기부터 배우자 선택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참여 하는가. 둘째, 미혼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억압은 성인식에서 어떻게 재현되는가. 셋째, 성역할에 있어 전통주의적인 가치의 답습인가, 혹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가. 넷째, 결혼 후 사회활동 지속여부와 가족경험이 미혼여성들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미혼여성들의 경험과 사회 문화적 환경 안에서 모순이 되는 갈등구조가 있다면 결혼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어 영향을 미치는지 여성주의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1) 연구방법

367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미혼 여성들은 현실을 중시하면서도 신데렐라의 꿈은 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감으로서의 재벌2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9.7%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인식하고, 배우자 직업의 안정성을 최우선 조건으로 대답했다.

본 논문은 독신여성 증가와 결혼 감소 추세 속에서 여전히 결혼을 희망하고 있는 대졸학력 이상의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결혼제도 속에서 재현되는 상황들에 대한 인식이 사회변화와 더불어 어떤 변화의 과정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결혼에서 섹슈얼리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미혼여성³⁾들에게서 성과 사랑에 관한 경험과 인식을 들을 때, 때로는 참여자가 모순적인 대답을 하거나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얼굴 표정에 역력히 나타났다. 그것은 사회 통념적으로 미혼여성이 말하고 행동하도록 규정되어진 대답과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 사이의 갈등일 것으로 추측된다.

구술면접은 여성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통해 다시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된다. 면접 시, 연구자가 참여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으로서 진심으로 공감을 하거나 이해할 때, 참여자들에게도 감정이 전이가 되어 더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의 경험은 사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고, 주변적이기 때문에 공식적 역사에서 부재하다. 또한 여성의 기억은 대체로 사적인 기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침묵되거나 지워진다. ‘역사 없는 집단’으로 각인된 여성들의 구술사는 이와 같이 침묵되거나 지워진 기억과 경험을 현재의 시점에서 역사화 하는 새로운 ‘역사 만들기’이다. 여성들의 구술사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여성 억압의 역사에 대한 ‘비판

3) 본 논문에서 인터뷰한 참여자들은 결혼을 희망하고 있는 여성들이므로 ‘미혼(未婚)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결혼 희망여부와 관계없이 통계청 자료에 나타난 초혼평균연령대에서 10세 이상 초과한 여성은 독신여성으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의 여지가 없는 지식'을 주장하며 여성해방을 실천하는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여성주의 구술사'로서의 잠재성을 가진다 할 수 있다(김성례, 2002).

인터뷰는 2006년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루어 졌으며 각 인터뷰 건당 소요된 시간은 약 70분~100분 정도였다. 참여자 섭외 및 선정은 연구자의 지인을 통한 Snow ball 방식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질문에 관한 이해를 위하여 질문지를 미리 보내거나, 여건에 따라 인터뷰 당일 질문지를 보기 희망하는 참여자에게는 인터뷰 실시 전 15분~20분 정도 질문 내용을 파악한 후 실시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비구조화 된 방식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결혼을 희망하게 된 계기 및 배우자 선택 시 고려하는 조건, 혼전성관계를 비롯한 동거에 관한 성 인식, 현실적인 문제인 결혼비용 마련부터 경제활동 지속 여부와 결혼생활 내에서 행하여지는 성역할 인식, 가족 경험 중 주로 부모의 결혼생활이 본인의 결혼관에 미친 영향에 관한 질문이었다.

연구주제와 연구목적, 심층면접법에 대한 설명을 연구 참여자에게 충분히 하였으며, 본 논문은 익명성과 인터뷰 내용의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인터뷰 시간과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인터뷰 내용 녹취를 위해 녹음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었다.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인 미혼여성은 25세~34세로,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대졸학력 이상의 미혼여성들 중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이다.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측면을 살펴보면, 비교적 고학력으로 대학

원 재학 중 혹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이성애자 여성들로, 13명의 연구 참여자 중 4년제 대졸자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재학이상의 학력은 4명, 2년제 대졸자는 1명이다. 이 중에서 2명의 참여자를 제외한 11명은 연애 경험이 있었으며, 인터뷰 당시 연애중인 4명 중 3명은, 교제중인 남성과 결혼을 희망하고 있었다. 성장가정환경 내에서 남성 형제들과 차별을 당해 교육기회가 박탈당한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었다. 참여자들은 인지도 있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로, 생활수준은 중상 이상으로 유추되며, 직장의 근무형태는 13명 중 상근직 8명, 비상근직 3명이었다. 다른 두 명은 대학을 졸업하고 4년 동안 직장생활을 경험한 후 현재는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와, 부모님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임용고시 준비만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거주지는 출생부터 인터뷰 당시까지 서울에서만 거주한 경우 8명, 광역시 거주자 4명, 중소도시 거주자 1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 학력, 직업, 가족관계, 연애경험유무와 동거여부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이들 중에는 결혼은 당연한 인생의 의례로 인식하는 경우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혼제도와 타협해 가면서 현재는 결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13명의 참여자는 인터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신의 내부에서 가치관 충돌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고, 미처 생각지 못한 성역할과 결혼 후 흔히 초래할 수 있는 갈등에 관한 질문에서는 지친 기색을 보이기도 하였다. 인터뷰를 마친 후에는 참여자 모두 그 동안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결혼에 관해 다시 생각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표 1 >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이름	연령	학력	직업	가족관계	연애경험	동거여부	비고
원영	29	대학원 재학	대학원생	부모, 1남 2녀중 장녀	있음	부모와 동거	
수영	26	4년제대졸	직장인	부모, 1남 2녀중 장녀	있음	부모와 동거	현재 연애중
미정	27	4년제대졸	직장인	부모, 1남 1녀중 차녀	없음	부모와 동거	
연주	27	4년제대졸	직장인	부모, 1남 1녀중 장녀	있음	부모와 동거	
소혜	28	4년제대졸	취업 준비중	부모, 1남 1녀중 장녀	있음	부모와 동거	
지이	28	대학원 졸	임용고시 준비중	부모, 1남 1녀중 차녀	있음	형제와 동거	현재 연애중
애린	28	대학원 재학	관현악단 단원	부모, 1남 1녀중 장녀	있음	부모와 동거	
정한	30	2년제 대졸	은행원	부모, 1남 3녀중 차녀	있음	부모와 동거	
지성	27	대학원 졸	관현악단 단원	부모, 1남 2녀중 차녀	있음	부모와 동거	
윤상	25	4년제 대졸	은행원	부모, 1남 2녀중 차녀	있음	부모와 동거	현재 연애중
도진	25	4년제 대졸	직장인	부모, 외동	없음	부모와 동거	
진아	34	4년제 대졸	교직원	부모, 1남 1녀중 차녀	있음	부모와 동거	
시은	30	4년제 대졸	교직원	부모, 1남 2녀중 장녀	있음	형제들과 동거	현재 연애중

Ⅱ . 연구배경

1. 선행연구 검토

결혼관에 관한 선행 연구는 결혼의 사회화, 결혼 결정과정, 결혼관의 변화, 결혼 선택 동기, 배우자 선택 요소 등이 해당된다. 그 동안 미혼 남녀의 결혼관과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가정학과 생활과학계 분야에서 통계를 중심으로 한 조사방법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박혜경(1993)은 여성들이 가부장적 결혼에 저항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맥락에 저항하지 않으면서 사랑에 매달리는 것은 여성으로 하여금 친밀한 남녀관계에서의 가부장적 억압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본다. 남성을 일차적 생계책임자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결혼의 틀을 거부하지 않는 것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열악함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여성이 경제력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빚어지는 현실로 보고 있다. 그래서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남성의 경제력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그것은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여러 조건들 중에 하나이며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할 수 있다. 남성을 생계책임자로 규정하기 보다는 여성들의 경제력과 사회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도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미혼남녀의 결혼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에서 김경신(1998)은 성차별 사회가 형성한 성 고정 관념은 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개인을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틀 속에 고정시켜 버리며, 사회가 형성한 성 불평

등성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삶도 제한, 왜곡 시키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주요한 사회화 기제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어, 남녀불평등의 사회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는 결혼에 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처럼 결혼관에 나타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결혼 이데올로기라고 정의한다. 여성들의 경우 연령이나 조건 등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배우자 선택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성의 성적대상화 등의 일부 조건에서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역할관에 있어서도 가사분담이나 역할 고정관념 등에 있어서는 진보적이면서도 남녀의 기본적인 능력, 여성다움의 고전적 가치 등에 있어서는 전통성에 동조하는 이중적 경향이 높았다고 한다.

미혼,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사회화 과정에 대한 채민정(1998)은 이들이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가를 살펴볼 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부모의 결혼 생활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결혼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부모의 결혼생활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 또는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겪은 경우 여성들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때로는 결혼에 대해 냉소적이고 부정적이 된다. 결혼을 수용하는 입장은 세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결혼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둘째 결혼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그리고 결혼을 수용하되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경우이다. 결혼이 일반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 당위적으로 결혼을 수용하게 되는 것에도 주변 환경에서 영향을 찾을 수 있다. 결혼을 희망하는 경우의 여성들은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결혼에 대한 기대로 결혼을 수용하고 있으며 특히,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결혼관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다.

결혼 사회화 과정에서 통념적인 결혼관을 그대로 내면화한 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자신의 기준 조차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의 결혼 결정도 통념대로 당위적으로 한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때로는 비판적으로 수용한 경우도 대부분 당위적인 결혼으로 연결되어 갈등이 일상화 되거나 갈등이 잠재된 갈등적인 결혼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 결혼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긍정적, 비판적으로 수용한 경우와 거부하고자 했던 경우는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호 발전적인 결혼생활로 이어지고 있다.

김양희(2003)는 남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혼을 하려는 동기로는 사랑의 실현, 가치 있는 일, 정서적 안정, 노후대비, 사회적 기대, 경제적 안정, 부모로부터의 독립, 부모님의 행복한 결혼 생활 순으로 나타났다. 사랑의 실현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힌다.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는 결혼에 있어서 사회적 기대, 배우자의 경제력이나 가정환경 등의 현실적인 조건을 중요시한다고 하더라도 결혼 당사자인 자신들의 사랑을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희옥(2003)의 연구에서 미혼딸과 어머니는 결혼의 필요성에 있어서 어머니와 딸은 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어머니(19%)보다 딸(32%)이 ‘능력이 있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34%)는 딸(10%)보다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어머니와 딸은 결혼의 의의에 있어서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어머니(19%)보다 결혼의 의의로 딸(28%)은 사랑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15%)가 딸(9%)보다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의 의의로 정서적 심리적 안정에 있어서 어머니(18%)보다 딸(25%)

이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중시한다고 밝혀졌다. 위 연구에서는 미혼여성들이 심리적인 안정에 결혼의 의의를 두고 있으며 경제력이 갖춰진다면 독신을 희망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결혼을 희망할 때는 자신보다 안정된 남성의 경제력을 간과할 수 없고, 이것은 정서적·심리적인 안정과 따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기혼남녀의 결혼관을 분석한 임선영(2003)의 연구에서 결혼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준비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것에 대한 준비가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고 성취되어야 할 새로운 과업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결혼생활에 대한 준비 측면도 결혼만족과 많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성숙’, 관계적 준비 측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소통능력)’, 결혼생활 준비 측면에서는 ‘성’, ‘결혼관’, ‘자녀양육’, ‘역할분담’, ‘금전관리’가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가 결혼을 희망하는 이유에 관한 장진경(2005)의 연구에서는 그들이 결혼을 희망하는 이유는 ‘인생의 동반자’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91.6%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2.3%를 차지하였다. 반면, 독신을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75.5%의 응답자가 ‘구속 받는 것이 싫어서’라는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는 ‘독신 생활을 선호해서’가 28.6%, ‘자아실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6.5%로 나타났다고 한다. 조사 대상자의 결혼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조사한 결과 결혼에 대한 의무담은 대체로 갖고 있다는 의견이 높았고, 결혼에 대해서도 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통계에 의한 분석 방법은 결혼에 관한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

추이를 이해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만 통계 분석내부의 여성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질문에 대한 답변의 배경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위의 선행연구들은 미혼남녀의 결혼관, 미혼, 기혼 여성의 결혼관, 대학생의 결혼관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여성만을 연구참여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선행연구 결과의 결혼관과 일치하거나 불일치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들의 결혼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인식을 하는 전통주의적 결혼관과 성역할 인식과 결혼 후 사회생활 지속여부에서 나타나는 개방적인 가치관이 대립되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전통적 결혼제도

장병인(1997)은, 우리 역사에서 가부장제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시기는 대체로 조선중기 이후로 본다. 『주역(周易)』의 근본원리는 자연과 인간의 세계 일체를 음과 양으로 이분하며 여자도 남자와 음과 양으로 대칭시킨다. 음양(陰陽)의 원리는 양이 음을 다스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양(陽)이 되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남존 여비의 관념을 내포한다. 조선조 16세기 이후는 부계 친족 체계가 제도화 된 시기이다. 중앙집권화와 부계 조직의 강화로 인해 외손과 내손을 구별하지 않거나 아들 딸 구별 없이 균분상속 했던 관행이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지방 호족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결혼을 이용한 왕건의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귀족 지배 계층에서는 여성을 매개로 한 동맹관계가 중시 되었다. 재가 금지와 정절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여성에 대한 통제는 정치이념과 밀착되어 조선조 지배계층에 적극 수용되었다. 전통사회에서는 결혼제도가 여성의 성에 대한 통제와 남성 권력의 재생산을 담당함으로써 가부장제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장필화, 1997).

(1) 대(代) 잇기 및 가족확대로서의 결혼

이광규(1990)에 의하면, 혼인의 과정 중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전통적인 결혼은 자유연애에 의한 것이 아닌 중매결혼 이었다. 혼기를 맞이한 신랑 신부 감을 둔 집안에서는 중매인을 보내 상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이때 상대를 선택하는 주도권은 신랑 측에 있었으며, 결혼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의사가 중요하였고, 반드시 중매인이 있는 것이 예(禮)였다. 현대사회에서의 중매결혼은 부모의 의사보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시되고 우선시되기 때문에 전통사회의 중매결혼과 현대사회의 중매결혼에서 배우자 선택 시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비중은 큰 차이점이 있다. 전통적인 중매결혼에서 혼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혼인당사자의 아버지였으며, 자녀의 일생을 좌우할 혼사 아버지인 모든 의사를 종합하여 결정을 내렸다. 특히 종가의 종손의 혼인에서는 가장만이 아니라 문중에서 회의를 열어 혼사를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당사자의 사람됨 못지않게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조건 그리고 조상의 관계 등 당사자 이외의 여러 사항을 참조하고 이것이 결정 요인이 되었다. 현대사회의 중매결혼도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조건, 가정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에서는 중매결혼의 본성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혼인은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집과 집의 결합 또는 종족 대 종족의 결합이라 할 수 있으며, 배우자 선택과 결혼준비과정에 있어 신랑 측이 주체가 되었으며, 신부 측에서는 수동적으로 선택되기를 기다려야 하며, 전반적인 결혼과정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 말하는 결혼이란 신랑신부 당사자가 결합을 하여 독립된 생활단위로서의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부계집단에 여자가 혼입자로 첨가되는 것이었다. 즉, 건강하고 착한 며느리를 맞이하여 가족의 번창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이광규, 1990).

부계가족제도 하에서는 가족관계 중 부자관계가 가장 중추적인 관계이다. 아버지와 장남인 아들이 축이 되어 혈통과 권력이 보장되며 다음 세대로 부계와 부권이 전수된다. 결혼을 통해 남성 가족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며느리는 가족의 권력 위계 서열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되며 아들을 통해 권위와 권력을 얻게 된다.

그리고 혼인은 가계를 잇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동시에, 선대의 생명을 단절함이 없이 계속 이어간다는 뜻을 가지므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효 가운데서도 가장 큰 불효에 속했다(이희재, 1997). 그렇기 때문에 가장의 위치를 계승할 장남이 가장 다음으로 중요하였고, 계승을 안전하게 해주는 아들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다.

최신덕(1978)의 연구에 의하면 아들을 가진다는 것은 조상들에 대한 의무이자 제례(祭禮)를 끊이지 않고 지낸다는 연면성(連綿性)을 상징하는 구체적 행위였다. 여성이 이혼을 당할 수 있었던 근거⁴⁾는 아들을

4) 칠거지악(七去之惡)은 처에게 일곱 가지 잘못이 있을 때 처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으로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한다거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음란하여 자식에 대한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때, 질투가 심하여 처첩제 운영을 어렵게 한다거나 나쁜 병이 있어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경우, 말이 많아 대가족 제도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다. 첩(妾)을 둘 수 있었던 근거도 아들을 낳기 위한 명분이었다. 가부장제 사회가 출산 기능을 가진 여성에게 아들 출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결혼한 여성의 가족 내의 지위와 운명은 아들 출산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남자는 가문을 대표하고 제사를 관장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노동을 천시하고 학문을 숭상함으로써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가부장적 풍토에서 남성을 생산한 여성은 보상되고 칭송된다.

가계의 계승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전통에서는 출산이 부부에게 부과된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여겨져 왔으므로 출산이 전제되지 않은 성관계, 즉 쾌락을 목적으로 한 성관계는 외면해야 할 기피적 행위로 분류되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결혼을 하여야 비로소 성인(成人)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그렇지 않다면 성인이 되는 통과의를 치루지 않음으로써 영원히 미성숙한 인간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생계 책임보다는 대외적으로 가족의 대표권, 가족 내부의 통솔권, 지휘권이 가장역할의 핵심이었다(문소정, 1995).

(2) 아내에게 요구되는 성윤리

전병재(1994)는 남편-아내간의 이성관계를 중시하는 서양문화를 성적문화(sexual culture)로, 반대로 부자유친(父子有親)을 강조하는 동양문화를 비성적문화(asexual culture)로 규정한다. 유교원리가 지배하는 동양적 문화 전통 하에서는 부부유별(夫婦有別)이니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과 같이 이성간 교제나 접근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현저하

잘 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칠거지악에 들었다.

다. 결혼관계를 통해서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통제되고 억압되어 왔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통제가 이데올로기적 차원으로 제도화 된 것이 가부장적 권위주의라 할 수 있다.

박수선(1990)에 의하면 부부간의 유대를 위한 성생활에 있어서도 오랜 세월 성적 욕구를 억압당해 왔기 때문에 여성은 성적욕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남성의 성적 배출구 또는 가문을 잇기 위한 자손 출산이 ‘성’의 유일한 목표이자, 임무로 두었고 이것은 여성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 사회적 관습과 통념 속에서 여성은 ‘성’을 즐겨서는 안 되며 정조를 요구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결혼한 여성에게도 ‘성적 욕구’란 없어 보이는 것이며, 성을 즐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어 왔기 때문에 전통적 결혼에서는 서로간의 애정이란 그다지 중요시 되지 않았다. 가부장적 가족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여성의 성관계는 규제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역사적으로는 조선조 사회에서 남성의 축첩행위는 공인되면서(박용옥, 1976) 여성에게는 정절을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도록 하였다.

여성들에게 가족-자아를 형성하기 위한 행동 규칙들은 자식(아들)생산하는 것과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은 개인이 가족-자아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서였고, 여성의 섹슈얼리티 역시 가족-자아의 형성기제로 이해되었다. 즉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출산 능력과 관련하여 전개되었다. 특히 여성의 몸은 가족-자아의 형성을 위해 구조화된 섹슈얼리티가 구현되는 장이었다(조주현, 1999).

전통사회에서 섹슈얼리티는 가족(가문)의 지속이라는 권력 기술하에서 전개되었다. 가문 대 가문의 결합과 지속이 섹슈얼리티를 규정함으로써 섹슈얼리티는 ‘수신’(修身)을 통해 ‘제가’(齊家)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해야 할 몸과 가족을 지속시켜 줄 자식을 생산하는 여성의

몸에 관한 성 담론을 통해 남녀 각기 가족적 자아로서 자신을 이해하게 했다(조주현, 2000).

결혼제도는 성규제의 방식을 결정하고 성규범과 성윤리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사회제도이다. 인류 문명사회의 초기부터 정착되어 온 가부장적 일부일처제는, 엥겔스가 지적한 대로 남성에게 대한 여성의 경제적 종속과 성적 종속을 제도화한 것이다. 가부장제 결혼은 이중적 성윤리의 전통을 가진다. 여성의 성은 남자의 상속권과 가문 계승의 목적을 위한 생식의 기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결과 정절이 여성의 절대적인 의무로 강요된다(이영자, 1991).

결혼한 남녀의 성은 자연스럽고 합법적이며 정상적이다. 반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성은 ‘비도덕적’이거나 공식적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되는 주제이다. 성규범은 결혼 제도를 기준으로 공식 체계와 비공식 체계로 분리되는 ‘이중적 성체계’의 특성을 갖는다. 공식 체계에서 지배적인 성규범은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성적 배타성이다. 부부관계의 남성과 여성은 성적 배타성을 유지해야 도덕적이다. 성규범을 구분하는 다른 축은 성의 행위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하는 점이다. 남편에게 성은 남성성의 한 부분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내의 성은 여성성의 연장에서, 보다 소극적이며 남편의 주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정도에 머무른다.

남성과 여성에게 달리 적용되는 이중적 성규범 안에서 여성의 성과 남성의 성은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구성된다. 여성이 정숙한 여성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체계에 속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혼 전 ‘순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특성은 수동성이다. 결혼 전 여성의 성경험 자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결혼 후 아내의 성 역시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기대로 이어진다.

(3)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

고든(Gordon, 1976)에 의하면 모성에 관한 이념은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 우리 사회에서 칭송되는 가치 중의 하나는 어머니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을 위한 헌신, 즉 모성에 이다. 엄마가 되려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양육의 경험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속박적인 일이기도 하다. 사회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자녀를 남에게 양육을 맡기면서 사회활동을 지속할 때는 비난을 받기도 하며, 여성 자신도 아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게 된다. 그 결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내와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여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가족이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신념은 성별분업을 재생산하고 성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페미니스트들은 주장한다. 초도로우(Chodorow, 1978)는 출산이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 성별분업은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것이기보다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축된 것이라고 본다. 기존의 가족에 대한 묘사는 여성의 경험이기보다는 남성들의 경험을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예를 들면 모성역할이 미화되는 것, 자녀양육, 이타주의 등은 여성적인 어머니다움의 본질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페미니즘에서는 그것이 여성억압의 도구가 된다고 주장한다(박민자, 1993).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청소하며 또

밖에서 일하는 남편이 일과 관련된 갖가지 스트레스와 불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함으로써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성들은 스스로 자립할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실은 여성들의 성취격차⁵⁾를 오히려 확대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에겐 가정에 안주할 사회적 선택 대안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책임에서 물러가 타인의 돌봄을 받는 가정에 안주하고 있는 여성이 많다(콜레트 다울링, 1987).

2)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적 역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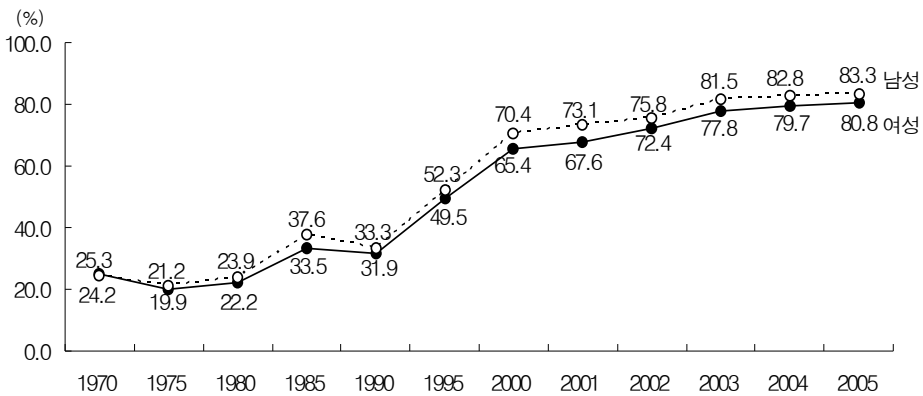
결혼은 가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모든 가족이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혼인은 가족을 형성한다. 해방 후 한국 사회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은 한국 가족 구조와 가치관을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한국여성의 위치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화에 따른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참여는 여성은 아내, 어머니, 그리고 직장여성으로서의 다중적인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사회 또한 그러한 것을 점점 더 요구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여성의 역할과는 달리,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면 현대의 여성은 역할의 갈등과 부담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이광자, 1993).

(1) 여성의 고학력화와 만혼

5) 여성들이 계속 전통적인 여성 취업 분야에만 몰려있게 되면 남녀 간의 소득격차는 끝없이 벌어지는 것이 ‘성취격차’ 라고 콜레트 다울링의 『신데렐라 콤플렉스』 49쪽에 설명하고 있다.

여성의 고학력화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0.8%로 나타나 2004년에 비해 1.1% 증가하였다. 전문대학 진학률은 2004년에 비해 1.9% 증가한 23.6%로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은 56.7%로 전년에 비해 0.8% 감소하였다.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1990년 이후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은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에 대해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 여학생의 대학진학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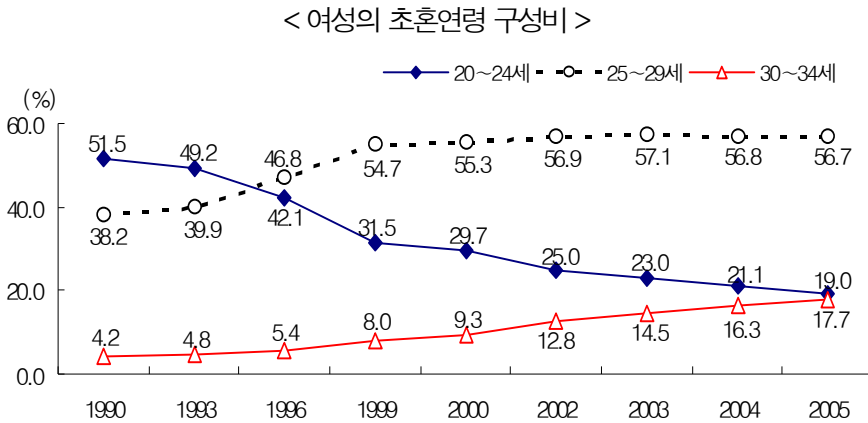


<그림 1> 여학생의 대학진학률 (2006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4쪽)

김정석(2006)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미혼남성 일수록 결혼의향이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미혼여성들은 교육수준과 결혼의향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미혼 남성들과 달리 미혼여성들의 결혼의향은 교육수준과 무관하다. 그리고 고학력화됨에 따라 배우자 선택을 비롯한 결혼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반영 비율

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사회활동을 통한 경제력의 확보와 자아실현 욕구로 인해 결혼을 필수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초혼 연령이 상승한다.

2006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른 초혼연령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5~29세 56.7%, 20~24세 19.0%, 30~34세 17.7% 이다. 20대 초반인 20~24세의 경우는 1990년 51.5%에서 2005년까지 19.0%로 절반이상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29세 구성비는 95년 44.9%에서 2003년 57.1%로 계속 증가하다가 2004년 56.8%, 2005년 56.7%로 다소 주춤하였으며, 30~34세 구성비는 2005년 17.7%로 199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초혼 연령 구성비에 대해 표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여성의 초혼 연령구성비(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3쪽)

위의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하여 보면, 여성의 대학진학율이 증가할수록 20~24세 여성의 초혼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도 20~24세 여성의 초혼율이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1990년 이후 여성의 대학진학율이 증가함에 따라 20~24세 여성의 초

혼율은 꾸준히 감소추세이다. 반면 1990년 25~29세 여성의 초혼율은 38.2%였지만 대학진학율이 증가함에 따라 초혼 연령이 점차 상승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대학진학율 증가와 초혼 연령 상승의 상관관계는 대학 졸업 후 결혼을 선택하는 것 보다, 사회생활의 지속과 자아실현 욕구 등으로 연결되며, 나아가 결혼관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2)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인구학자들은 혼인상태, 혼인연령, 피임 등 출산조절기술 사용을 출산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고, 여성의 지위, 가족규모, 육아 인프라, 국가경제 등 사회경제적 변수를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요인으로 설명한다. 최근의 출산율 하락은 이러한 요인들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결과이다. 21세기 초반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의 확대, 소비사회적 특성, 여성취업 증가로 나타난 성별분업의 변화, 만혼 현상과 동거, 이혼의 증가 등에서 보이는 근대 핵가족 규범의 약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출산행위 및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취업이 증가하고, 가부장적 가족규모가 약화되면 출산율이 낮아진다. 성별분업과 결혼중심의 가족문화를 전제로 하는 근대 가족규모의 안정성이 약해지면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다(이재경, 2006).

2005년 추정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08명이다. 1970년 4.53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35년 동안 3.45명 감소하였다. 2005년 모의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 여성 천명당)을 보면 출산율이 가장 높은 25~29세 연령층이 92.3명으로 전

년보다 12.3명 감소, 30~34세 연령층은 2004년 84.2명에 비해 1.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4세 연령층은 17.9명으로 2004년 20.4명보다 2.5명 감소하였다.

〈표 2〉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 %, 평균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¹⁾ (여성천명당)							합계출산율 ²⁾ (가입여성 1명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70	19.3	192.8	320.1	205.4	105.8	46.0	13.1	4.53
1980	12.9	141.4	244.1	106.6	30.6	8.5	2.0	2.83
1990	4.2	83.2	169.4	50.5	9.6	1.5	0.2	1.59
1995	3.6	62.9	177.1	69.6	15.2	2.3	0.2	1.65
2000	2.5	39.0	150.6	84.2	17.4	2.6	0.2	1.47
2001	2.2	31.6	130.1	78.3	17.2	2.5	0.2	1.30
2002	2.6	26.6	111.3	75.0	16.7	2.4	0.2	1.17
2003	2.5	23.7	112.3	79.9	17.3	2.5	0.2	1.19
2004	2.3	20.4	104.6	84.2	18.6	2.5	0.2	1.16
2005 ^p	-	17.9	92.3	82.3	18.9	-	-	1.08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보도자료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주 : 1) 연령별 출산율(%)=(모의연령별 출생아수/당해연령별 여자인구)×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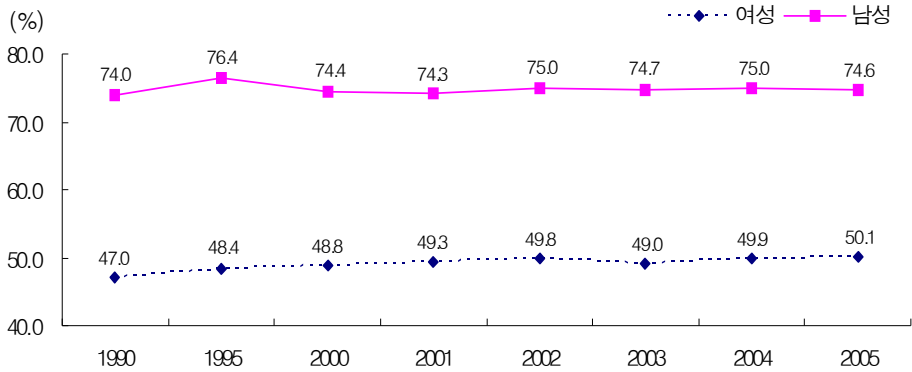
2) 합계 출산율=(연령별 출산율의 합/1,000)×5

p : 잠정치

여성들의 교육수준향상으로 경제활동의 참여가 늘고, 자아실현과 평등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여 출산을 기피할 것이라는 통념이 있다. 그러나 OECD 국가의 경우를 보았을 때, 과거에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 출산력 저하로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출산율 상승과 비례하고 있다(이재경, 2006).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이 상승하기 때문에 소자녀를 선호하게 되고 자녀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그림 3>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6쪽)

2005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1%로 2004년 49.8%에서 0.3%p 상승한 반면, 남성의 경우는 74.6%로 2004년 대비 0.3%p 상승하였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지만, 꾸준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향신문 2006년 9월 15일자 기사⁶⁾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5~39세 여성 100명 중 36명은 미혼으로 같은 연령대의 고졸 여성 미혼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사학위를 가진 여성 100명 중 38명은 미혼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학력이 높을

6) 2006년 9월 15일 경향신문이 통계청의 2006년 11월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25~39세 4년제 대졸 여성 1,614,000명 중 미혼자는 578,000명으로 35.8%에 이르렀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고졸 여성 2,658,000명 중 미혼자는 460,000명으로 17.3%에 머물렀다. 4년제 대졸 여성의 미혼율이 고졸 여성보다 2.07배 높은 셈이다.

수록 결혼하지 않고 독신 여성이 증가하는 것은 고학력 여성 일수록 사회적 성취를 위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들은 학업기간 때문에 결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미혼율이 높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표 2>에서 나타나듯이 2005년 가임여성 1명당 1.08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여성들이 자녀출산을 당위적으로 인식한다면, 가족규모의 변화와 자녀양육 비용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확대 추세 속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성역할에 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즉, 출산을 선택하고 사회활동 역시 지속하기를 희망한다면, 그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와 간접적인 원인을 고려했을 경우에도 출산에 관한 당위적 인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본론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Ⅲ. 결혼 수용과정에서의 여성 주체성의 모순

1. 결혼 결정 계기

참여자들이 결혼을 희망하게 되는 계기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독립을 하고 싶거나, 혹은 특별한 계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결혼은 ‘하는 것’ 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당위로서의 결혼관

결혼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와 독신보다는 동반자와 함께 하는 삶을 희망하는 경우이다. 동반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결국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고와 연결지어질 수 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수영>특별한 계기라기 보다는 어릴때부터 독립해서 살고 싶었어. 그 독립이라는 게 집에서는 (개인적인 시간)안되니까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 결혼을 구실로 해서 집에서 나오는거. 근데 혼자 나오고 싶은데 집에서 너무 반대하시니까. 엄마랑 트러블 있을 때. 말다툼하고 내가 집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솔직히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에서 누리고 싶은 문화생활을 못 누릴 때. 책 읽고, 공부하고, 차 마시고 이런 것들.. 집에서 독서는 거의 못하고 공부할 때도 항상 밖에 나와서 공부하거든. 집에는 시끄럽고 사람이 많으니까. 북적북적 하니까.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독립된 개인으로

서의 정체감 획득은 적응을 향한 개인의 욕구이며(Hoffman, 1984) 일반적으로 분리-개별화 과정은 부모에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부모로부터 독립과 분화 및 자기 정의 수준이 증가되는 과정이다(맹영임, 2001, 재인용). 그래서 결혼을 원하는 미혼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서의 독립의 방법으로 결혼을 선택하기도 한다(김양희 외, 2003). <수영>의 경우는 집안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극히 적은 사례로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여 독립을 희망하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이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구해 자취를 하기 힘든 경우이다. 현재 교재중인 이성이 있으며 독립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은 욕구로 결혼을 희망하고 있다.

<지성>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주위에 나이 많은 언니들이 안되보이더라고.. 나는 저 모습까지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이쁜 나이에 결혼을 하고 싶은 게 여자 욕심 아니겠나.. 일이 너무 바빠서 이 일이 직업이기 보다는 하나의 취미활동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결혼을 하고 싶지. 경제력이 뒷받침 되는 집에 시집을 가서 너무 여기 얽매어서 스트레스 너무 심하게 받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럴 때..

<도진>계기라기보다는 당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게 많아요. 대학 다닐 때나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그런 거 있죠.. 시집이나 가지. 취직도 안되는거 시집이 빠르겠다 이런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속물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다.. 그러려면 몸매도 좀 가꾸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에 지치다 보니까 좀 내가 생각하고 애가 철딱서니도 없어지는거 같고 그래요.

<지성>과 <도진>은 모두 사회생활 중이며 비교적 안정된 수입과 본인의 일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일에 집중을 하지만 결혼을 통한 경제적인 안정으로 본인들의 경력과 생활의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도진>

이 돈 많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몸매도 가꾸고’ 라는 말은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몸’ 이외에는 어떤 자원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육체를 가꾸는 것은 여성들에게 유일한 자아실현의 영역이었으며 사회적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한설아, 1999)이었으며 남성들이 배우자 선택에 있어 여성의 외모에 비중을 크게 두는 통념에서 비롯된 인식이다. <도진>역시 좋은 조건의 배우자감을 만나기 위해서는 외적인 자신의 모습에 투자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인 동시에 이성이 자신을 선택하는 외모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의 다수는 결혼을 희망하는 이유로 인생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를 필요로 하며, 동반자와 함께 하는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며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시은>결혼해서 좋다는 애들도 있고, 결혼해서 나쁘다는 애들은 대체로 시댁이랑 갈등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애들은 나보고 늦게 하라고 하지. 그거는 자기네들 생각이고, 좋을 때는 또 좋아. 난 개네들의 안정이 좋아. 그래도 내 편이 하나 있다는 게 좋아. 내 반쪽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연주>어차피 사람은 혼자 사는 것 보다는 거 보다는 같이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뭐랄까 처량해 보이고 그런 게 있어.. 불쌍해 보이고 내가 그렇게 될 거 같고.

<지이>계기는 없는데, 그냥 우리 사회구조상 결혼 안하고 살기는 힘들잖아. 나이를 먹어서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게 쉬운 세상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친오빠랑 사니까 외로운지 잘 모르겠는데 형제가 있어서 외로움을 안 느끼는 거랑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외로움을 안 느끼는 거랑 틀리는 거 같아서. 외로움의 문제지.

<정환>혼자 사는 인생이지만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지.. 친구들이 행복하게 잘살 때, 나는 왜 저 행복이 없어서 비참하다는 기분이 들 때, 생활이 안정을 찾게 되잖아 결혼을 하면..

<시은><연주><지이><정환>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혼자’ 보다는 동반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은 ‘독신여성’에게 관대하지 않은 분위기와 편견을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결혼을 통한 생활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 <정환>은 결혼한 친구들을 볼 때 비참한 기분을 느낄 만큼 결혼 생활이 안정을 주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아>사실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하고 안생기면 굳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했거든. 결혼에 대해서 꼭 이런 개념은 없었어. 없었다가 제 작년 그때쯤에 생각이 든 게 내가 굉장히 교만 했구나 생각이 든거야. 그러니까 서른이 넘어가면 세상이 바뀔 거 같고 끔찍한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막상 서른이 되기 전에 압박감에 심했거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막상 서른이 넘고 서른한 살, 두 살까지 괜찮은 거야.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야.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우울한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스물아홉에 생각한 것처럼 큰 변화가 없는 거야. 차라리 마음이 더 여유로워 지는 거야. 이 정도라면 끝까지 혼자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고 친구도 많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굳이 남자와 아이와 결혼이라는 걸 안 해도 난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게 교만했다는 생각이 들지. 내가 굉장히 생각을 잘못 했구나 생각이 든거야. 난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인데.. 사실은 그 동안도 혼자 산 게 아니잖아. 부모님이 나를 지지해 주셨고, 친구들이 나를 지지해줬고 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줬음에도 난 혼자 잘산다고 생각을 한거야. 난 혼자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걸 아주 뒤늦게 깨달은 거지.

기든스(Giddens, 1990)는 사랑과 결혼은 가족 이외의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방식이며 남녀 모두에게 삶의 도피처로 사랑과 결혼이 새삼스럽게 기대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진아>의 경우도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맞이하는 지점에서 심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원만한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은 자립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3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부모님의 존재와 주변관계가 영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자신이 독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자신을 지지해 줄 관계 맺음으로 결혼을 희망하게 된 것이다.

2) 주변 환경의 영향

참여자들은 가족관계 혹은 사회에서 결혼을 요구받게 된다. 결혼에 대한 정신적 · 물질적인 제반요소가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사회생활 내에서 주변인들로부터 결혼 권유를 받는데, 이런 경우 결혼재촉에 대해 거부감과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독신여성에 대해서는 13명중 3명이 반드시 능력이 있다면 부정인 시각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고, 10명의 참여자는 독신여성의 능력과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결혼을 희망하게 된다고 대답하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하기 적합한 연령에 도달하면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여성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시기를 사회에서는 결혼하기에 적합한 시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권유를 받게 된다. 그것은 본인의 의사와 상황에 따른 개인적인 상황에 따른 적령기가 아닌 결혼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다.

<지이>선을 보라던가, 결혼할 때 똥잖아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 나이가 되서 결혼하라는 거 싫지만 수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당장 결혼

할 생각이 없지만 서른이 넘으면 좀 조여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사회적인 적령기도 있지만 내가 이 정도 나이에 결혼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가 적령기 이지 않을까.. 자신의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해.

<애린>그런 게 많지 않을까? 한국 문화라는 게 당연히 어느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내 나이가 스물여덟인데 난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 난 적당한 시기에 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는데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단 말이야. 늦었다 라는 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난 나이 기준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식이 그러니까. 나이가 같더라도 난 아직 철이 안 들었어. 갈 수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시집을 가면 큰일이 나. 내 생각에는. 난 준비도 안 되었고 늦었다고 생각도 안하는데 사회에선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

<지이>와 <애린>은 사실 본인들은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혼이 의식화 된 주변 환경은 결혼을 요구하고 있다. 스물여덟이라는 나이는 사회에서 결혼 적령기로 보고 있지만, 개인의 적령기는 본인이 인지하는 성숙과 결혼하여 자녀양육에 무리가 없을 상황이 갖추어 저야 결혼 적령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결혼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한>그런 말 들어 본적이 있지. 기분이 별로지.. 계속 스트레스를 주니까. 누구는 하기 싫어서 안하나? 하고 싶은데 그 시기가 조금 늦는 것뿐이고 결혼은 신중해야지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무하고나 할 수도 없잖아. 내가 좀 많이 따지고 그런 건 있는데 주위에서 막 너는 너무 많이 따진다 별 사람 없다 그냥 가라 그러는데 그건 아닌 거 같거든.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싫으면 안 되는 거잖아.

<정한>의 경우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 신중하고 싶지만 주위에서는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서른’이라는 나이는 배우자 선택에 신중함을 기울이는 것을 ‘까다롭다’ ‘눈이 높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

<도진>무의식적으로 사회화 된 게 많은 거 같아. 아직 뭔가 개념이 정립 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게 많지 않나..

<진아>당연히 있는 거 같아. 드라마나 문화적인 측면도 그렇게 흘러가지만, 내가 서른이 넘어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되게 심하잖아. 이름 물어보고, 나이 바로 물어보고, 내가 나이를 서른셋 이에요 넷이예요 얘기를 하면 어 그럼 결혼은? 이라고 바로 나와.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어 왜요? 멀쩡하신 거 같은데 왜요? 이런 식의 반응이 거의 대부분이야.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솔직히 그것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 같아. 상관 안해 라고 얘기는 하지만 서른 셋, 넷부터 어디를 가잖아? 나이 물어봐도 말 안해. 저는 그런거 별로.. 제가 왜 말씀을 드려야 하냐고 이런식으로 넘어가..

<도진>은 결혼에 대해 주변 환경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결혼을 수용한 경우이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수용에는 TV,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대중매체는 사회현실을 정의해 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려 줌으로써 수용자들로 하여금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임정빈, 1997). 미혼여성들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가부장 사회에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결혼하여 임신과 출산 과정을 통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성역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아>의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결혼이 늦어지게 되면 길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결혼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하는 질문을 받게 되며, 여성은 더욱 결혼과 연결되는 자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여성을 ‘우습게’,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성 자신의 내부적인 인식에서도 말하는 것을 회피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혼여성들은 과연 독신여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혼의 여성은 보호자가 없는 약자이거나 모성성을 경험하지 못한 미성숙자로 취급되어 사회 문화적 편견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이영자, 1999). 미혼여성들은 친구들의 결혼이나 초혼평균 연령이 초과하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독신여성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성>아무래도 그렇지. 난 독신주의 보면 자기가 정말 맡은 일에서 톱이 되고 그런 모습은 보기 좋은데, 톱이 아닌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어쨌든 애처롭다고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수영>편견 같은 건 없는데 내가 한번은 결혼 안하신 교수님 댁을 찾아가간 적이 있어. 나이가 한 4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인데, 근데 딱 집에 들어간 순간, 아 왠지 처량맞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이 들어서 혼자 살아도 좀 멋있게 살아야지. 과연 그게 멋있을까? 그건 좀 아닌 거 같더라고. 왠지 모르게 외로운 느낌이 나는 집안의 분위기, 만약에 화사하고 이쁘게 꾸며져 있고 밝은 느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어두운 느낌..처량맞아 보였어요.

<미정>자기 일에서 별로 지위가 없으면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 근데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안정된 직업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근데 능력이 없으면 뭔가 초조해 보이고, 안되보이고 그래. 내가 겪은 노처녀 대리를 보면, 다 퇴근하는데 혼자 영어공부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저러고 있구나.. 훔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

<정한>솔직히 좀 안되보이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근데 보면 뭐가하나 빠졌어. 항상 혼자 있고 연애도 안하고 그러니까 왜 저럴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 나는 그전에 빨리 해야겠다 생각이 들지. 편하긴 하겠지만 이왕이면 노처녀 되기 전에 가는 게 낫지. 내가 볼 때는 뭐가 하나 빠진 거 같지. 능력 없는 올드미스는 능력이 없어서 못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 나이 되도록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진아>그닥 좋아보이지 않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여유로워 보이는데, 없는 사람은 정말 지지리 공상처럼 보이지. 근데 둘다 좋아 보이지 않아. 되게 공허해. 삶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줘. 안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런거 같아.

<시은>내가 본 올드미스들은 다 능력이 있었지. 다 부장급이고 이런데.. 그 위치 가느라고 결혼을 못했대. 이해도 돼. 거기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해도 가는데도 결국은 그 사람들도 맨날 하는 말이 자기가 잘났으니까 더 잘난 남자 찾으려니까 결혼을 못해. 영원히. 영원히 못해. 또 남자들은 더 어린 여자를 찾잖아. 이게 참 괴리지. 여자는 능력은 되는데 결혼은 못하고.. 아깝지.. 안타깝고, 외로워 보이고, 그 많은 돈 어디다 쓸 거며, 혼자 병들고 이러면.. 그래서 나도 더 늙기 전에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사람들 보면 생기는게 없잖아 있지..

평균 초혼 연령대를 초과한 독신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은 여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데 대체로 독신여성들에 대한 인식은 ‘처량 맞다’, ‘안되보인다’, ‘무능력하면 문제가 있다’, ‘뭔가 빠진 거 같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면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은 자신이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인 능력이 지속된다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수영>처럼 경제적인 능력이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은 여전히 결핍되어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도 한다.

문현숙 외(2000)의 독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독신자는 신체적인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정서적 문제도 가지고 있으며 외로움, 고독, 공포감,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인 통념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어려움 과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전통적인 결혼이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 또한 기혼자들의 생활에 이

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독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지이>나쁘게 생각을 안 해, 아직 인연을 못 만났을 거란 생각이 들지. 때를 놓치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는 거 같아.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 결혼하기 힘들 거 같아. 능력 있으면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가정을 가지고 싶어. 올드미스는 동경의 대상도 비난의 대상도 아니지 근데 무능력하면 문제가 있겠지.

<윤상>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회사생활하면서 만난 올드미스들이 다 이상해서. 대표적인 예로는 가정이 없고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인간관계 그런 거.. 회사생활하면서는 당연히 그런 거 없어야겠지만 인정이라던지 그런 게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 일반적인 가족관계라던가 그런 거 배려가 없는 거 같아. 아무래도 나이 들면 독립하고 혼자 살게 되잖아 혼자 사는 가정과 여럿이 사는 가정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 아무래도 올드미스면 혼자 사는 시간이 더 오래 길어지잖아. 그래서 그런 거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무뎠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아마 돈도 많이 벌고 능력 있고 연애도 많이 하고 그런 올드미스라면 부러웠겠지? 동경의 대상이 됐겠지?

<도진>능력만 있으면 올드미스도 뭐. 능력 있고 멋있게 가꿀 줄 알면..이것도 좀 광고나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나도 모르게 길들여 진거 같은.. 흔히 그런 것에서 나오는 올드미스가 정말 변변치 않은 직업에 변변치 않은 외모에 그런 올드미스가 아니라 나름 멋있는 사람들이잖아. 한편으로는 결혼으로 인한 장밋빛 판타지를 원하면서도 어차피 내 능력되고 돈 있으면 저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근데 능력 안되는 올드미스는 처참하지.

독신여성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두 가지 요소는 ‘경제력’과 ‘연애’ 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거나 연애 경험도 부족하지 않다면 독신여성도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기혼 여성에게서는 경제력을 중요시 하지 않고, 독신

여성에게는 경제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는 것은, 결혼과 동시에 여성의 자발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경제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결혼 후에는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미혼여성들에게도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다.

2. 가족(부모) 경험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현대 한국 가족의 규모, 형태, 기능, 가족관계 등은 일련의 변화를 나타내지만 가족생활을 규정하는 규범은 대체로 전통적 가족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문소정, 1995).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는 가(家)중심주의로서 부계 혈연주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가족 서열적 사회관계와 가족 의례를 중시하는 지배문화에 근거하며, 부모 공경과 자식 사랑의 서정적 가족주의를 내포한다(이영자, 1999).

가족은 그 자체가 하나의 체계인 동시에 전체사회의 하위체계에 속한다. 부부중심이 된 가족구조에서 자녀양육의 책임은 대부분 여성의 역할로 맡겨지고 있으며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에 참가할 경우 자녀양육의 문제가 커진다. 여성의 어머니 역할은 보편적이고 오래된 성별분업의 하나이며 그 역할은 가족구조, 성관계, 여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도로우(Chodorow, 1978)는 사회적 조직과 재생산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어머니 역할에 관심을 두었다. 어머니 역할은 사회구조적으로 유도된 심리학적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강화된 역할훈련이나 생물학적 산물은 아니라는 것이다(양옥남, 1994).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과정에서 목격하게 되는 최초의 여성의 삶은

어머니의 삶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삶을 한 사람의 ‘여성’, 혹은 사회적인 ‘개인’의 삶으로 보기보다는 단지 ‘엄마’라는 역할의 삶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1) 긍정적 투영으로서의 영향

참여자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행복한 모습보다는 많이 힘들고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머니와 같은 결혼 생활을 절대 거부하는 경우는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아버지가 비교적 자상하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아버지에 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1) 엄마를 통해 본 결혼생활 : 엄마처럼 살 수 있을까

성장과정에서 어머니의 삶을 봤을 때, 여성 자신들 또한 어머니 역할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게 된다.

<원영>엄마의 삶을 보면서 결혼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갈수록 느끼는 거지.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고 맞춰 산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엄마는 되게 그런 걸 좋아하고, 보살피는 거 좋아하고, 화초도 가꾸고, 강아지도 두 마리나 키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 이라는 거 혼자서 주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워낙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워낙 많은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수월한 일만은 아니잖아, 저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수월한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지. 우리엄마는 적성에 맞는 일인데도 저렇게 힘들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거지

<애린>예전에는 엄마가 안쓰럽다. 나랑 동생키우는 게 만만치 않았을텐데.. 엄마 아빠 안쓰고 우리한테 쓴거야. 지금도 사치 부리고 다니는 엄마들 너무 많아. 근데 엄마는 걸치장을 하지 않고, 사람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셔. 그래서 계속 학교도 다니셔. 그런 거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은 하는데 배울려고 해. 이젠 엄마가 할 만큼 했으니까 엄마가 할 도리만 하고 엄마를 위해 나머지 시간을 쓰는 거지. 그걸 아빠가 도와주시는 거지. 할 도리는 다 하시지, 근데 예전처럼 얽매이지 않으시지.

<지성>나는 지금까지 아침밥을 거의 거른 적이 없어, 우리 엄마가 늦게까지 가게 일을 하고 오셨어도 학교 다닐때도 그렇고 아침밥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거든. 난 우리 엄마는 당연히 새벽에 와도 아침을 당연히 해주는 걸로. 안해주는 상상을 안해봤어. 근데 친구들 얘기들으면 아침밥을 안먹고 오는 친구들이 더 많은 거야. 엄마 잔다 그러고.. 그런거 봤을때 딸은 엄마를 보고 나중에 그 모습이 물어난다고 하잖아. 나 역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거 같아. 우리 엄마는 정말 하루에 두 세시간 자고도 아침에 한번도 거른적이 없거든. 예전에 가게일하실 때는 바쁘잖아. 아침에 밥하고 가게 나가고 방중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가게 일 안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 엄마가 좀 시간이 많아도 잘 활용을 잘 못하는 모습.. “엄마 이것도 좀 해봐봐 문화센터 잘 되었잖아” 저렴하고 아줌마들도 많고 그런데도 내가 신청해줬다니까. 단전하고 노래교실 이런 거. 요즘은 불교대학 이런 것도 다녀. 너무 딱딱하게 지내시다 보니까 시간활용하는 걸 너무 몰라서, 저번에는 보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티비 보고 뜨개질하고 책보고 이게 다인거야. 친구들 모임도 한 달에 몇 번 이거 밖에 없으니까. 그 모습이 좀 안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보고 신청해줬어. 안됐지. 돈을 천 살 정도까지 버신 거니까. 그 덕분에 우린 이렇게 돈 막 쓰면서 살았는데..

<원영>과<애린>은 어머니의 역할을 보면서 결혼생활에 대한 힘겨움을 알기 시작하였다. 어머니의 삶과 관련된 질문을 할 때 가장 먼저 연결되는 사고는 역할과 관련되어 연상되는 모습들이다. <지성>은 맞벌이 하는 어머니가 그 동안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모습과 현재 자식들이 성장한 후 외롭게 시간활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결혼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있어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통해 <지성> 또한

어머니처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오클레이(1990)는 딸들은 어머니를 역할 모델로 삼아 일방적으로 어머니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혹은 어머니의 표준에 반발함으로써 어머니의 가사노동수행은 딸의 행동이나 태도의 준거가 된다고 하였다.

<도진>아빠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럴지, 실패한 가정생활은 아니라고 봐. 결혼하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하고 그런 건 있었는데 그건 좀 안 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던 거 같아. 별거하고 이혼하고 이런 건 없었다고 하지만 서로 사소한 것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좀..

<진아>불쌍하지. 자기 인생이 없잖아. 남편 위해서 자식 위해서 지금 이 날 이때까지 사시니까. 조카 보고 계시니까. 그게 그분한테는 재미고 삶의 보람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불쌍하지. 엄마처럼 안 살거라고. 내가 엄마한테 요즘도 그래. 이혼하지 그랬어. 왜 그걸 다하고 살았어.. 그래. 그러면 니네 땀에! 그래..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려고. 솔직히 말하면 아주 많이 틀리진 않겠지만 분명히 틀리긴 할거야. 세상도 달라졌고 그렇게 사는 건 내가 못 견딜거 같아.

<도진>은 아버지가 자상하지는 않았고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전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굳이 실패라고 정의하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결혼이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진아>는 어머니의 희생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막연하게 어머니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것은 확실한 이유는 없지만 오랜 세월동안 되풀이 되어온 딸들의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젊은 미혼여성들도 육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후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경력이 단절되어 사회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여성들의 역사와 맞물리는 갈등적인 요소로 남아 있는 부분이다.

(2) 이상형이 되는 아버지

가부장적이지 않고 자상한 아버지는 엄마의 좋은 남편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애린>난 내 이상형이 아빠야. 정말 아빠야. 일단은 최선을 다해. 일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셔, 부지런하셔. 퇴근하시면 집에서 청소도 아빠가 다해, 엄마 힘든 거 아니까. 엄마를 배려해준다고 해야 하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배려해주는걸 보면 난 아빠 같은 사람 꼭 만나야 겠다 생각해

<정한>아버지 자체도 자상하고 잘 챙겨주고 엄마도 정이 많으셔. 우리아빠는 재밌으신 분은 아니거든. 자상하고 잘 챙겨주고 이런 건 좋는데 거기 유머감각이 있으면 더 좋지.

<지성>우리 아빠는 엄마랑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서 아빠 첫사랑이야. 그래서 지금 58년을 학교도 같이 다녔고 같은 동네에서 결혼해서 그 동네에서 살다가 이사를 나온 거니까. 우리 아빠는 엄청 자상하셔. 보수적이지 않아. 가부장적이지도 않고. 우리 엄마가 대신에 좀 더 고집스럽지. 지금까지 엄마아빠가 큰소리치면서 욱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이 없었어. 왜냐면 둘이 너무 잘 알아서 같은 동네서 자라서 자그마하게 톱톡 거린 적은 있어도 큰소리치면서 싸운 적은 없었던 거 같아. 그러니까 조용조용하게.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면 좋겠어. 가정적이고 그렇다고 일을 소홀히 하는 분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엄마를 무척 사랑해 줬다는 거.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평생을 같이,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닐 때 짝궁 하고.. 그게 부러워. 여자로서 행복하지 않나? 여자가 목소리가 좀 더 커야지 가정의 일이 잘 돌아가잖아

13명의 참여자 중 3명만이 남편으로서 아버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아버지에 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요소는 자상함과 가사노동에 대한 협조도, 어머니와의 원만한 관계이다. <지성>은 아버지가 경제적인 능력과 어머니에 대한 자상하였으며 성장과정에서 부모

님의 격한 다툼이나 가부장적이지 않은 모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2) 부정적 투영으로서의 영향

어머니는 항상 자신을 희생하고 고통도 감수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리고 취업주부이든 전업주부이든 결혼과 동시에 가사노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금전적으로 해결하거나 가정 내에서 대체인력이 없는 경우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역할로 인식되어져 왔다.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을 보고 자란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억압적인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수는 아버지 같은 남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대체로 아버지의 부재에 익숙해 있었거나, 권위적인 모습,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거나 가사분담이 행하여지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 이었다.

(1) 엄마의 억압적인 결혼생활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지속되어온 배경에는 어머니의 ‘인내’와 ‘희생’이 뒷받침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수영>엄마 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 절대. 우리엄마는 아빠랑 같이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가게 같은 거, 그걸 관두고 막내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이제 일을 그만했어. 그 전에는 항상 엄마 아빠가 다 없어서 내가 내 동생 돌보고 밥하고 그랬거든. 근데 엄마가 집에 있으면서 처음엔 좋았어.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더 예민해지고 우리 엄마가. 그리고 가끔가다가 우울증 증세도 있는 거 같고 내가 볼 때.. 그리고 그런 것

들이 싫어. 엄마가 바라보는 게 자기가 지금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엄마한테 엄마 지금 나가서 뭐해, 괜찮아 엄마 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도 엄마는 아니야 지금 나가서 뭐하겠어. 이런 것들, 자신감 부족하고, 애들만 바라보고 있고, 남편 바라보고 있고 이게 너무 싫어. 그런 모습이 될까봐 싫어. 집안형편이 좋으면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니까 엄마는 나가서 그런 거 잘 안하려고 하고 내가 내 돈으로 뭔가를 끊어주고 수영 같은 거 끊고 수영복사서 갖다 줘도 할까말까 예요. 그래서 내가 겨우 끌고 갔더니 그때부터 운동도 좀 하는 편이고 조금씩 내가 돈으로 뭔가를 해줌으로 엄마가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왜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수영>은 어머니 같은 삶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여가시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운동을 권유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 하는 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딸은 어머니의 모습이 때로는 답답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지이>그다지 안 좋았을 거 같아. 그냥 뭐 아빠가 안 도와주고 모든 면에서. 대체로 안 도와주고, 시부모나 이런 사람들 땀에 힘들었고, 가사일 하는 게 힘들었겠지. 자식들이 바람대로 되지 않고, 당신은 열심히 사는데 그 외 주위의 가족이나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 못하고 도움이 못 되는 거. 아빠는 마음으로 위하는 건 알겠는데 표현은 안하시고, 여자로서 엄마는 안됐지. 자기는 성공하고 있어도 주위 사람은 엉망이라고나 할까..

<지이>는 어머니가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가족들은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주위사람 즉, 가족을 ‘엉망’이라고 표현했다. 어머니가 사회활동과 더불어 시대 식구들과의 불편한 관계, 가사, 자식 등으로 힘들었을 것이며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협조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더라도 ‘안 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자식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여성으로서 어머니 역할에 있어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정>십자가인 것 같아. 엄마가 천주교인데 가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자기의 십자가는 네 아빠인 것 같다고.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 인거 같아, 짐이면서 십자가고. 그런 느낌이야.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결혼생활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편이야. 그런데도 안하면 더 외로우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하는 게 좋은데, 나이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건 아니야. 나한테 맞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안하는 거지. 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듣고 이러니까 결혼의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꼭 반드시 해야한다 그런 건 아니야.

<연주>꿈을 잃어버린 늙은 소녀지 뭐. 애들 키우고 어쩌다 보니 지금 거의 오십이 됐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직업도 갖고 문화생활도 충분히 누리고 친구도 만나고 그런 삶..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아. 엄마는 그냥 가족밖에 몰라. 너무 가족밖에 모르니까 답답해. 어렸을 때는 우리를 돌보니까 여유 둘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다 크니까 맨 날 혼자 밥먹고, 혼자 등산가고 그러는 거 보면 가슴 아프지..

<시은>우리 엄마 생각하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지. 그 시대의 엄마들이 그렇고.. 솔직히 불행했다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 물질적으로 너무 풍족하게 우리 엄마 받았기 때문에.. 그거 아니었으면 되게 불행했을 거야.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 결혼하려면 돈 있는 남자랑 결혼 하라고, 그래야 이혼할 때 편하다고.. 이 말이 나오는 거 같아. 우리 엄마도 물질적으로 받아서 편한데, 아빠의 그런 거 때문에 되게 힘드셨을 거야. 근데 엄마가 성격이 되게 낙천적이거든. 그래서 버티셨어. 그냥 우리 엄마는 그러고 말고 잊어버려. 엄마의 삶이 불행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안타깝고, 어쨌거나 아빠의 그런 거를 다 인내하고 혼자 견뎌다는 게 되게 그래..

‘모성’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어머니 개개인에게는 때로 벽차고 힘겨울 수 있다(이연정, 1999). <미정>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를 통해 결혼생활의 고충을 들으며 성장을 했다. 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 또한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은>은 아버지의 성격으로 인해 어머니의 결혼생활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다.

(2) 가부장적인 아버지

가부장적 담론을 해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천적인 일은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일이다(이동수, 1999). 대체로 보수적이고 권위주위적인 아버지는 자녀의 양육을 아내에게 전담시키고, 사회생활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영>아빠는 항상 어렸을 때 놀러가거나 그럴 때 없었어요. 어렸을 때 아빠랑 엄마랑 같이 일을 했었거든, 그래서 빠질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왜 빠졌을까..? 아빠는 그때 친구들 만나거나 그랬던 거 같아. 아빠의 부재에 항상 익숙해져 있어. 지금도 아빠는 약간 그런 편이야. 아빠는 집에서 약간 살갑지 않아요. 전혀. 아빠가 그러질 못해요 전혀. 친하고 살갑고 그런 거. 다가오는 방법이나 그런 걸 모르셔. 어릴 때부터 아빠 같은 남자는 만나고 싶지 않았어. 우유부단하고, 그런 면이 너무 싫어. 그래서 남자를 봤을 때 그런 면을 처음 봤던 거 같아. 아빠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오빠는 자신감이 있고 오빠는 결단력이 있어.

<수영>의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부재에 익숙해져 있다고 했으며 아버지의 우유부단함과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나타났다. 현재 교제중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희망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아버지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정>결혼하기 되게 싫었어. 어렸을 때는.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어. 오

빠도 아빠랑 안 좋고. 엄마가 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얘기를 듣기 싫어도 많이 해주는 편이었거든. 아빠랑 싸운 것들도 나한테 다 얘기를 하니 까, 나는 속으로는 왜 저럴 거면 같이 사나. 힘들어하면서.. 저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지.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 우리오빠는 아직도 자기는 결혼은 안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처음에는 엄마가 아빠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왜 같이 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애정이 있어서 괴로움을 느끼는 거였더라고. 아빠가 엄마를 좀 더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길 원하는 그런 표현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어려서 그런 걸 못 알아들었고, 저것도 다 애정표현이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 싫어하면서도 우리아빠가 성실한 면은 있거든. 그런 거는 좋아, 근데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건 싫어.

<소혜>아빠는 보수적 인거 같아. 엄마는 순응적이신 분. 아빠한테도, 우리 자식들한테도 아빠 같은 남편감은 난 싫어.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얘기 잘 안들으려고 하고.. 친구 같은 남편감이 좋은 거 같아

참여자들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데 있어서 보수적이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고,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머니는 순응적인 모습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남편감을 선호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가족과 융화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경우는 가족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된다.

<지이>부모와는 유대관계가 없지. 친근한 관계라기보다는 상하적인 관계,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해도 별로 할 수 없었고, 사실 뭐.. 하라고 하지도 않았지. 대화를 나눌 시간도 분위기도 아니었지. 옛날에는 힘들었지. 나쁘지는 않을 거 같은데 대화가 부족하고 아빠가 가사 일을 안하셔.

거짓말 안하고 바른생활 사나이 이런 건 좋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잘하는데 부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지. 그런 부분은 매워줄 수 있어야지. 자라면서 식구들에게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부모와 얘기상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지.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 보통 가정보다는 부모가 절대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부모가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 문제제기, 이의제기 못했지. 생각조차 안했지. 의지가 없었지. 수동적이었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 같아.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한다는 거.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진다는 게 두려워. 나의 선택을 못 믿지. 시키는 건 잘하는데, 스스로는 못하지.

<도진>아빠가 엄한테다가 사람 피곤하다싶게 꼼꼼한 사람이야. 허튼 소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여자들보면 종종 백화점 아니라 마트에 가서도 싸면 뭔가를 이렇게 사오는 이런 거 있잖아.. 엄아아빠도 지금까지 뭐 그냥 살아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성격이 안맞는거야 나도 모르게 저렇게 쪼잔한 남자와 절대 결혼하면 안되겠다 이런것들. 아휴.. 혼자 살거야. 너무 피곤한 타입이야. 만약에 나도 그런 타입이면 하나하나 정확하고 꼼꼼하게 재고 쓸데없이 그런거엔 냉정하고 그런 타입이면 괜찮은데 좀 감정적으로 욱하고 그런게 있어서 그런 정확하고 꼼꼼한.. 어느 정도 보완이 돼서 그런거는 괜찮지만 너무 거기 얽매어서 살고 싶지는 않아.

<시은> 아빠는 사업을 하셨는데 성질이 되게 급하셔서..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우리 어릴 때 돈을 되게 잘 버셨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돈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잘해주셨어. 그랬는데 아빠가 화를 내면 우리가 너무 무서워했어. 셋 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했어. 그런 반면,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순하셔서. 여태까지 우리 엄마 아빠 결혼생활이 지속된게 우리 엄마가 복종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30년 동안 결혼 생활이 유지됐다고 생각해 나는. 아빠가 제일 무서웠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꾸 결혼 하려는 남자를 자꾸 내가 자상하고 이런 사람만 찾게 돼. 아빠가 회사일이 안되고, 이러면 사업을 하셔서 예민하고 그러면 집에 와서.. 그래서 그런 남자가 싫은게.. 바깥일은 바깥에서 풀고 들어오고, 집에선 가족한테 잘해야 하는데, 가족한테 푸는 스타일이야. 남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인줄 알아. 그런 아빠의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싫었어. 나는.. 난 돈이 그렇게 많아도 가족을 마음 아프게 하는.. 남자는 만나고 싶지 않아. 우리 아빠는 요즘은 되게 후해. 그

것 때문에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해.. 지금은 그 갈등이 완치가 된 편인데도 기억은 남아있고, 요즘은 아빠가 늙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아빠도 안됐지..

<시은>의 경우처럼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어린 시절의 여성들에게 남성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게 한다. 하지만 성장 한 후 이성교제나, 성장과정 동안은 말하지 못했던 가족내부의 문제들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혼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부터는 결혼을 희망하기도 하고 모든 남성이 아버지 같지 않음을 알고 자상하고 친구 같은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형성하고 싶어 한다.

<시은>그런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세상을 알게 된 거야. 어릴 때는 세상의 남자들은 저런 아빠들만 있는 줄 알았어. 진짜 그랬어. 딴 집은 모르니까. 그리고 딴 집은 다 행복한줄 알았어.우리 아빠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커보니까 다들 문제가 있는 거야. 다들 아빠를 싫어해.. 아빠들은 다혈질이고, 우리나라 현실상 아빠랑은 안 친해. 그래서.. 아.. 이렇게 아니구나..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우리나라의 부부간 권력구조는 자율형이 가장 많고 다음이 일치형, 남편 우위형, 부인 우위형의 순서로 나타난다(최규련, 1994). 이러한 경향이 외형적으로는 부인의 권력이 증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부간의 역할분담이 뚜렷하여 부부가 각각 고유의 영역에서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부간의 권력은 의사결정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기보다 그 의사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영역이냐 또는 부부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누가 갖느냐를 근거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노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여성들의 가정 내 권력이 향상되었

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임정빈, 1997).

이러한 부모의 부부관계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여성들에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결혼을 거부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한다.

3. 배우자 선택의 비주체성

자본주의화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가부장적 원리가 나타나 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제시기를 거쳐 형성된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는 낭만적인 사랑을 강조한 ‘사랑받는 아내, 성공하는 남편’의 형태로 발전한다. 낭만적인 사랑의 기대 속에 젊은 남성과 여성은 더욱 ‘남성 적’이고 ‘여성적’이 되려고 노력하고 연애의 상대, 궁극적으로는 ‘적절 한’ 동반자를 찾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랑하는 부부만을 위한, 부부 만에 의한 단출한 핵가족을 지향하며 여성들은 전혀 다른 가부장적 지배 체제에 안주하게 된다. 전통적인 남존여비 사상을 중심으로 한 규범적 지배는 크게 약화되었으나, 심층적인 차원에서 그 특 성이 유지되는 면이 없지 않다(조혜정, 1988).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결혼에서 주체적인 입장이 될 수 없었으며, 정확히 말하면, 결혼 당사자 남성의 아버지의 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중매결혼 일지라도 전통사회와는 진행 방식이 다르다. 하지만 남성의 직업이 전문직 이거나 외적인 조건에 비중을 크게 두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이 수동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1) 배우자 선택의 비주체적 조건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미혼여성들은 현재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능력, 그리고 성취욕구에 따라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조건에 비중을 달리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적인 조건에 비중을 두는 참여자들은 학력에 있어서는 모두 자신보다 높은 학력의 남성을 선호했으며, 1명을 제외하고는 장남은 거부한다고 대답하였다. 내적인 요소에 비중을 두는 참여자들은 문화적 성향, 능력의 발전가능성, 대화, 배려를 중요한 요소로 대답하였다.

의존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외적인 조건들을 대해 살펴보겠다.

<미정>성격도 보게 되고, 학력은 적어도 나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직업은 영업직은 싫고, “사”자 이런 거는 안 따지는데 안정된 직업이면 좋지. 근데 지금 상황이 안정되지 못했더라도 사람이 미래와 목표가 있고, 외모는 못 봐줄 정도 이상이면 되고, 키는 나보다 크면 좋겠고, 근데 똥똥해도 되는데 키 작은 건 용서 못해. 외동아들은 싫고, 장남은 부담 되서 별로고, 약삭빠르거나 머리가 너무 빨리 도는 사람보다는 순진하고 성실한 사람.. 남편이 너무 조건이 좋으면 뭔가가 있을 거 같아. 기죽어 사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싫어. 나랑 여건이 비슷한 사람이면 좋겠어.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지금에만 안주하려는 사람은 싫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을 원해.

<미정>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직의 남성을 원하지는 않지만 안정된 직업을 가진 남성을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조건의 배우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을 나열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까다롭다. 비교적 며느리의 역할이 강조되는 외동아들과 만며느리는 거부하며, 좋은 조건의 남성은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적인 조건에 비중을 크게 두는 경우이다. <미정>이 이처럼 모순적인 보이는 것은 자신은 “사”자

남편, 소위 말하는 전문직의 남성과 결혼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는데, <미정>의 인식 속에 “너무 좋은” 남자로 인식되어 있으며, 그 외 나열한 조건들의 남자 또한 “나랑 여건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주관적인 기준의 인간성, 외모, 형제관계, 학력, 안정적인 직업 등에서 “너무 좋은” 남자와 직업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훌륭한 조건의 남성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환>돈도 잘 벌면 더 좋지. 회사원도 좋지만 사업하는 사람도 괜찮지. 나도 회사생활 하지만, 남자들 남 밑에서 굽신굽신 하고 그러잖아. 내 남편은 안 그런 사람이면 좋겠고, 능력도 있고, 나이는 1, 2살 연하도 괜찮고, 나이 많은 사람은 싫고, 2살 연상이 좋아. 장남인데도 제사 없는 집도 좋고, 장남도 괜찮은 거 같은데, 좋으면 어떡해.. 장남이라도

<정환>은 배우자가 사회생활에서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곧 자신의 사회적 위치로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은 비교적 적극적이거나 사회적인 성공의 욕구가 강하지 않더라도 남편은 사회생활에서는 리더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성>시간이 지날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데, 일 순위를 두 가지를 매기고 싶은데 욕심이지.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거.. 남자다운 리더십 그런 거. 능력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 남들에게도 인정받는 남자. 너무 내가 욕심을 많이 부리지. 눈이 자꾸 높아지는 거 같아. 내 자신을 내가 만들고 싶은 거 같아. 내가 이 사람 부인이 되기도 하지만 내 남편이 누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 걸 비춰 봤을 때 자꾸 욕심이 나. 선호하는 직업은 전문직, 소위 말해서 “사”자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저번에도 보고 그랬지만 그런 사람들은 바라는 게 많았고, 난 나이 차이가 좀 났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장남이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재력 있는 집 장남이라면 막내 보다 나을 거 같애

<지성>은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경력개발을 꾸준히 지속하는 있는 성취욕구가 강한 여성으로, 결혼 후에 배우자를 통해 사회적 인지도와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함께 삶의 질과 수준을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재력이 있다면 ‘장남’이라는 조건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역할과 연결된다면 사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의 여지는 있다.

<도진>요즘 같은 경우는 단지 돈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서포트를 받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소득 전문직이 된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고소득 전문직도 부모에서 자식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런 기준을 만족시키기엔 아직은 허접한데 내 남자는 그랬으면 좋겠고, 사고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 성격 보면 약간 빈정대는 게 있어. 냉소적이고 짜증도 좀 심해, 무슨 일이 있으면 준비성이 지나쳐서가 아니라 안 될 경우를 먼저 생각하고 그게 좀 심해서 긍정적이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형제관계는 나는 차라리 남자만 있는 집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한 3형제 이런 거. 장남은 아니고 둘째.

<도진>은 고소득 전문직의 남편을 원하고 있다. 본인은 전문직이 아니고 사회적인 조건에서 부족함이 있지만 배우자는 우위에 있기를 바라며 성격적 결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남성을 원한다. 상대 남성의 가정환경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이 형성하게 될 가정 또한 풍족하고 여유롭기를 희망하는 사고의 재생산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형제, 자매가 없는 <도진>은 안정적인 형제관계구도에 대한 바람이 있는데 만며느리 역할은 부담스러워 하지만 형과 동생이 있는 안정된 구도속의 차남을 희망하고 있다.

<미정>은 장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성>은 재력 있는 집안일 경우 장남도 좋다고 하였고, <도진>은 장남은 싫다고 말했다. 장남을 거부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장남이 중심이 되어온 가부장 사회에서 며느리가 된

여성에게는 가장 낮은 지위를 부여하고 시부모 부양, 가사노동, 조상에 대한 제례에 대한 부담, 대를 잇기 위한 아들 출산 등 맏며느리에게는 요구되는 역할이 많았다. 전통사회보다는 인식이 전환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에게는 전통사회에서 요구되던 역할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부장적 전통사회에서 장남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음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고, 역할 유지의 책임과 보상을 받게 되는데, <지성>의 경우는 장남이 막내보다 나올 거 같다는 인식은 전통사회의 부자(父子)중심의 권력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은>능력 있으면 좋지. 그런 거 다 빼고 나한테 되게 자상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가 좀 전라도 분이야.. 진짜 성질 욱하는 게 너무 심해. 정말로. 그래갖고 난 그런 반대인 남자를 만나고 싶어. 자상한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솔직히 학력은 나보다 나오면 좋지. 직업은 회사원 이라기보다는 전문직 아니면 사업했으면 좋겠어. 장남 그런 거는 별로 없어. 내가 장녀라서 그런지.. 제사하고 시부모 모셔야 하면 그런 거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라고 생각해.

<시은>은 맏며느리에 대한 전통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별 거부감이 없으며 아버지의 과격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보고 성장했기 때문에 배우자는 아버지 성격의 반대인 자상한 남성을 배우자로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학력이나 직업에 있어서는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남성을 선호하고 있다.

배우자 선택이 있어 외적인 조건에 비중을 두는 여성들은 모두 자신보다 조건이 좋은 남성을 이상적으로 이야기 했다. 학력, 직업의 안정성, 인간성, 장남거부 등의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때 미혼 여성들은 자신의 독립적인 주체성 보다는 소비 활동 지원과 경제적 심리적 안정성을 보장해 줄 남성을 원하는 의존적인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참여자들의 경우 배우자 선택의 조건에 있어 학벌이나 직업 같은 외적인 조건들이 여성인 자신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배우자 선택관이 나타나는데, 이는 결혼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결혼관에 기인한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결혼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맘머느리에 대한 역할의 부담이 큰 장남은 거부하고 있는 부분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면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모순적인 결혼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경향은 결혼제도가 여성들에게 결과적으로 더욱 성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과 의식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배우자 조건에 있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지향하는 의지를 보인 참여자들이다.

<연주>내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 재밌고, 동시에 진지한 사람..두 번째는 문화적인 코드가 맞는 사람, 내가 보고 싶은 그림보러가고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고, 영화보고, 근데 그걸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꽤 있어. 그런 게 안 맞으면 만남이 지속되지 못해. 돈보다는 미래가 보이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해.

<지이>직업은 잘 모르겠고, 첫째로 떠오르는 건 친절하고, 매너 있고, 모든 게 그런데 대화가 통한다고 하는 것도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마음의 포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 그래야 모든 것이 통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직업보다는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안정된 직업이면 좋겠지.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연주>는 문화적 성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고 대답했다. <지이>는 인터뷰 당시 교제중인 남성과 결혼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나열한 조건들은 남자친구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했다. 이처럼 연애 중 일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조건이 결혼에 대한 바람으로 연결이 된다.

<애린>나랑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 시야가 똑같을 순 없지만 같은 사물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어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서로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서로 능력이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다음은 성격 .성격은 내가 맞춰줄 수 있어, 난 그건 자신 있어. 상대방이 못 맞춰주면 안 좋긴 하겠지만 내가 맞춰준다면 상대방도 나를 맞춰줄 거 같애. 난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꼭 볼거야. 난 부모랑 자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애린>은 남성에게 맞춰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 자신이 주체적이기보다는 의존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에게 맞춰줄 수 있는 요소들은 여성성의 표출을 뜻하는데, 소위 말하는 ‘애교’ 와 ‘외모’를 남성과의 관계 유지 기제로 표현하고 있다.

2) 연애와 중매

중매는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이지만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하기보다 개인적인 만남으로 시작되어 결혼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연애는 중매처럼 상대방의 조건을 비교하고 만남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고려

할 때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고민을 하게된다.

(1) 연애와 현실의 괴리

사랑은 정서적이나 육체적인 결합을 요구한다. 연애를 하게 되면 결혼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고, 결혼에 관한 조건들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연애는 가족이 배재되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을 고려하게 되면 가정환경,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게 된다.

<연주>고민한 적 있어. 남자는 너무 부자야. 그래서 오히려 고민이었던 적이 있었지. 집에 가면 너무 차이 나고, 차도 너무 좋고, 내가 이런 애랑 결혼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 웬지.. 그 사람들이 나를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랑 있을 때는 다른 애들이랑 똑같고, 그런데, 개네 집에 가보고 개네 엄마를 만나고, 개네 형제를 만나면 되게 달라지는 거 같고, 내가 이 집안에 식구가 될 수 없을 거 같은 느낌.. 작은 부분이지만 애하고는 더 깊게 발전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커지게 됐어.

<윤상>경제적인 상황이라던가 집안 수준이라던가 그런 거 냉정하게 맞춰 보면.. 몇일 전에 오빠네 엄마가 내가 목걸이 선물해줬다고 했을 때 오빠네 엄마가 나랑 결혼할거냐고 물어봤대, 오빠가 그럴 거 라고 했더니 오빠네 엄마가 우리집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더라. 그랬더니 아마 그 집에서 너를 싫어할 거라고 그랬데요. 결혼 안시킬거라고.. 나중에 그럴지도 모르니까 미리 그런 거 생각해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우리 부모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난 아직 그 얘기는 고민은 안 되는 거 같아. 왜냐면 아직은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 심정으로는 반대에 부딪쳐도 이기고 할 것 같아. 엄마는 한다면 시키겠다. 널 어떻게 말리냐고. 근데 주변을 보면 하고 싶어지지 않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긴 돈 하나도 안 벌고 편하게 사는 거 보면 사실 경제적인 거죠.. 지금은 신경 안 쓰더라도 한 몇 년 지나고 현실에 적응하면 싫어지겠지.

<연주>는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아들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연애 후 결혼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 한국사회의 경우 가족, 즉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낭만적 사랑은 개인과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윤상>은 현재 교재중인 남자친구의 조건을 부모님이 선호하는 조건이 아니지만 본인의 의사가 확고하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낭만적인 사랑은 결혼을 통해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기 전의 과정으로 이해되고, 그 가족은 기존의 가족의 영향 하에 놓인다. 자신의 독자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인데 <연주>는 남자친구의 가족에 편입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으며,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이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한국의 가족 문화이다.

<정환>고민이라기보다는 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낭만은 둘째로 하지, 현실을 보지..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아니다 싶으면 버리지. 좋아해도. 좋아는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끝끝내 못 사귀었지. 난 현실쪽으로 더 치우치니까 내가 그걸 못 이겨내니까. 주위에서도 뭐라고 하고, 우리 부모님도 별로 안좋아하고. 잘 안되더라고.. 결국은 헤어지더라

<지성>학부 때 만났던 오빠인데 몇 년을 만났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을 다들 걱정스럽게 여겨져서. 직업, 학벌, 그 주위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을 못 했던 거 같아. 지금은 내가 돈을 벌고 이러면서 내가 내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 어느 정도는. 그때는 막막했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학생 때는 약게 머리를 굴리고 이런 걸 못하잖아. 그 오빠랑은 사람은 너무 좋은데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진아>개 하나만 봤을 때는 환상이었는데, 내가 과연 개에 대한 사랑만으로 주위의 모든 것을 감당 할 수 있을까. 나도 사회의 쓴맛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돈 버는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약간 여유 있게 출발한 사람들과 없어서 출발한 사람들,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 어렸을 때는 출발선이 다르면 어때,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갭은 계속 커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결혼까지 해서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추락하는 거잖아. 그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자신 없더라고.

<정한><지성><진아>는 모두 경제적인 이유로 연애하던 남성들과 이별을 선택했다. <정한>은 현실적인 조건이 본인과 가족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으로 연결되지 못했으며 <지성>역시 당시 연애 중이던 남성에게 호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직업과 학벌에서 가족과 본인을 만족시켜 줄 수 없었다. <진아>는 남자친구 집안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결혼 후 두 사람이 책임져야 할 문제들에 대해 고민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별을 선택하였다. 연애와 현실사이에서 고민하고 결혼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경제적 상황과 직업이나 학벌 등의 조건과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환영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외적인 조건에 비중을 크게 두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고학력, 직업, 현실 보다는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판단의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결국 남성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의 안정성이 결혼 후 자신의 삶을 남성에게 의지하였을 때 만족을 안겨줄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평가이다.

(2) 중매에 수반되는 지위 상승 기대

결혼을 희망하는 경우, 배우자 선택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선을 보기도 한다. 성장과정과 주변 환경에서 연애나 중매로 결혼하는 사람들을 흔히 보고 자랐기 때문에 결혼을 당연시 하게 되고, 동시에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도 흔히 있는 일이니만큼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교제중인 이성이 없는 경우 타의든, 자의든 선을 보게 되는

데, 상대 남성의 조건은 본인이 처한 현실로 연결되어 인식되므로 정체성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자각과 충격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원영>그야말로 상품이 됐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그 사람의 됴됨이나 아니면 성격이나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서로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돈이나 외모나 이런, 그야말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상품가치로 평가되는 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나쁘지. 잘됐다 해도 기분 나쁘고 안되도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한마디로 기분이 더럽지. 선은 한번 봤는데 그 남자가 이상한 건 아닌데 기분은 더럽지.

<원영>은 배우자 조건에 있어서 가치관이나 인격 등 내적인 요소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강한 여성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남성이라도, 자신의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배제된 상황에서 처음 만나는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서로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지성>처음에는 음악하는 분 말고, 한의사를 한명 만났는데, 되게 설레었어. 내가 여기 가면 남들이 생각하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갔어. 정말 대놓고 그러더라고.. 개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부원장인데.. 대부분 그래. 내가 아는 직장 언니도 “사”자 만났는데 종매주선자들이 그런 얘기까지 다 한대.. 기분이 정말 안 좋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돈을 써가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선 이라는게 그럴잖아. 나가기 전에 모든 걸 다 보고 나가잖아. 지금도 선이 들어오는 이야기는 있는데 한의사랑 레스토랑 사장이라. 빌딩 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너무 부자집에 가면 내가 힘들 거 같아. 적당하게 하는게 좋지

<지성>은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한 여성으로 배우자 선택에 있어 직업과 경제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제적 자원의 기반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연주활동을 하는 <지성>은 멋진 연주회와 레

스비 등 자신을 위한 금전적인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므로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경력을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선을 본 남성 또한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고 선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모순되는 점이 드러나는데 <지성>은 자신이 전문직종의 남성과 결혼을 하면 보장받게 될 생활의 안정성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남성 또한 자신에게 기대하는 경제적인 조건을 들었을 때는 회의적인 생각에 빠진다. 배우자를 통해 사회적 지위의 상승과 경제적인 지원을 희망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은>소개팅을 작년에 좀 많이 했어. 다 조건은 좋아. 얼굴은 정말 다 아저씨야. 과장님 나오고 이래. 솔직히 과장님 나오면 정말.. 내가 이려고 만나야 하나.. 나 결혼 안해. 이렇게 된다니까. 화가 버럭 나면서.. 기분이 되게 그럴지..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좀 어렸을 때 결혼을 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과장님을 만나는 시기가 올 줄이야

미혼 남녀가 고려하는 배우자 조건에는 성차가 존재하는데 미혼 남녀 모두 애정, 성격, 건강 같은 개인적인 속성을 중시하나 이차적으로 남성은 여자의 용모를, 여성은 남자의 학벌과 생활력 같은 현실적인 조건을 중요시 한다(김경신 외, 1998).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도 <시은>처럼 외적인 매력에 비중을 두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장님’은 직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이거나 매력적이지 못한 외모의 남성을 뜻하는 말이다.

<정한>소개팅을 하는데 결혼을 전제로 하는 소개팅이지.(상대가 마음에 안들면?)참담하지, 마음이 우울하지.. 내 짝은 정말 없나 싶기도 하지.. 나이가 들면 사람을 선택하는 폭이 좁아지잖아. 연하보다는 위를 봐야 되잖아. 나이 많아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범위가 좁아지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조바심도 생기고 우울하고 안 좋지.. 기분이..(괜찮은 남자

를 만났을 때는?)기분이 좋지, 되게 막 안달이 나지. 혼자 마음속으로 너무 그러니까 일이 잘 안될 수도 있지. 난 그 사람을 잡고 싶으니까 나는 잘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조금만 뭐라 해도 생각하고, 좋은 반면에 불안하지.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에서, 상대방의 조건은 곧, 자신의 현재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상대에 따라 우울, 조바심, 안달, 불안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진아>조건이 굉장히 좋은 경우 있었고 조건이 별로인 경우 있었고,, 조건이 좋은 경우는 솔직히 처음에는 흠족하지. 어떻게 인간인데 안 흠족할 수가 있겠어.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나이가 많고 직장이 탄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야말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솔직히 학교 다닐 땐 막 짜르거든, 커트라인을. 보도 듣도 못한 애들하고 선 시장에서 만나는 거야. 아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이 드는데, 되게 기분이 씩씩해 우울하고.. 사실은 그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지. 솔직히 그 사람이 조건이 모자라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우울해 한다는 거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같아. 우울한건 사실이지만 그건 우울한 것과 동시에 굉장히 미안해. 외면적으로 보이는 게 모자라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불량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 취급을 했기 때문에 바로 우울한 거고, 그 사람을 만나다보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건데 선 시장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잖아. 몇 번보고 바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울한건 사실이지만 바로 미안해.

<진아>는 30대 중반으로 근래에 들어 선을 자주 보고 있다고 하였다. <진아>의 나이 때문에 사회 관습상, 상대 남성은 연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30대 중후반의 남성들이므로 20대 남성보다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만족스러운 조건 남성을 만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경제적인 능력이나, 직업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과 같은 외형적으로 판단되어지는 부분들도 포함이 된다.

대부분 배우자 선택에 있어 남성은 여성의 신체적인 매력을 우선 순위에 두고, 여성은 남성의 경제적인 능력에 비중을 크게 두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성들 또한 남성의 신체적인 매력에 비중을 두기도 한다. 그런데 <시은><정한><진아>처럼 여성인 자신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되어있더라도 외모까지 매력적인 남성을 만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주위에서는 여성들의 나이와 연관지어 ‘눈이 높다’ ‘까다롭다’ 라고 편견을 하고,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나이 때문에 우울과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IV. 섹슈얼리티와 성역할 인식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차이로 성별을 구분 짓는 성(sex), 인지된 문화적 차이로 구분하는 사회적 성(gender), 육체적인 성관계, 그리고 성성의 개념을 들 수 있으나, 성 개념을 크게 성역할과 성성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호연관성이 있다(심영희, 1992). 현대적 성역할 분업에 맞추어 경쟁적인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하는 남성은 일에 맞는 성품을 갖추어야 했고, 남성은 그 기질이 “지배적이고 강하며 박력 있고 이지적” 이어야 한다는 가치 규정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에 보조적이고 정서적인 역할을 수행할 여성은 ‘여성적’ 이어야 하는데 ‘여성성’에 관한 규정 역시 역할에 맞도록 ‘유순하고 연약하며 민감하고 감성적인’ 것으로 내려졌다. 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전제는 행위자들에게 자연적 사실 내지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져서 기존의 성역할 분업을 유지시키는 핵심적 기제가 된다(정대현, 1985).

1. 미혼여성의 섹슈얼리티

한국의 페미니즘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의 성이 강제적이고 착취적인 대상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여성의 성적 쾌락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성적 쾌락을 탐구하는 것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여성은 다치기 쉽고 성에 대해 무지하며 수치스러워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켰다(조영미, 1999). 따라서 미혼 여성들은 자신의 성경험과 성인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성적인 자유로움, 성지식에 대한 이해는 정숙한 여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정숙한 여성이 아닌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이라는 이미지는 결혼의 장애요인이 된다. 하지만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회분위기의 변화는 여성들에게도 점차 성적 주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미혼 남성과는 달리 미혼여성의 성은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모순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1) 혼전 성관계에 관한 인식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성담론은 유교에 기반을 둔 전통적 도덕주의 담론 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본질화 하면서 남자는 양으로 여자는 음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유교는 음과 양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양이 음을 다스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결국 남성은 성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여성은 성적으로 지배당해야 하는 존재로 위계화 한다(심영희, 1996, 재인용). 보수주의 담론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전제를 달리 하면서 남성과 여성에게 이중적인 성규범을 적용하였다. 전통사회에서 남성은 공식적으로는 생식 중심의 성, 결혼 관계 내에서는 성을 따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축첩이나 성매매 등이 무방하다고 여겨졌다. 반면 여성들에게는 순결과 정절을 지키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을 성경험의 유무에 따라 성적으로 조신한 여성과 문란한 여성으로 이분화 하는 통제기제를 통해 현재 까지도 지속되고 있다(조영미, 1999). 혼전 성관계는 남성에게는 엄격하지 않고 여성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어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에게도 최소한 결혼을 약속한 남성이 아닌 경우

에는 보수주의 담론의 사회화로 인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 여성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혼전 성관계

혼전 성관계에 반대하는 참여자들은 혼전 성관계가 결혼제도 밖에 있기 때문에 틀이 없는 가벼운 관계로 규정하기도 하고, 보수적인 가정 분위기와 임신에 대한 불안은 혼전 성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원영>내가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사랑이 어떻게 보면 가벼워 보일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책임에 의한 관계다보면 처음엔 감정에 의해 시작했을지 몰라도 자꾸 견고해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반면 결혼이랑 내가하는 성관계가 별개이다 생각을 하면 공허한 관계에 지나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거 때문에 생각에 두고 있는 건 가능한 한데 내가 생각하기엔 공허한 관계를 내가.. 받아들일까? 남자건 여자건 나랑 한 몸이 될 수 있는 건 둘 셋이 아니라 한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내가 그런 신념을 지머간다면 내 사랑은 그렇게, 규정이 되는 거 같은데 나는 내 마음가는대로 가게 하는 사람은 그건 사랑이 아닌 거 같아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렇게 아닌데 그렇게 되면 가벼운 사랑이 된다는 거지..

<미정>내가 되게 보수적인 편인데, 집도 그렇고 나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 그럴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들어. 근데 그건 생각뿐이지 실제로는 결혼 후 만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행동할 것 같아. 그런 상상을 하면 두려워. 수치심 그런거..

<연주>혼전성관계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싫어. 난1%의 불행이라도 닥치는 게 싫어. 그러고 나서 달라지는 애들(남자)도 많으니까.

<진아>나 엄청 보수적이야. 난 부부라고 생각해. 집안도 보수적인 거에다 친구들 영향이 큰거 같아. 성 이라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긴 하지

만 만약에 잘못됐을 시에 여자만 당하는 데미지가 보통이상을 넘는다는
거를 알아..

<연주>가 말하는 ‘1% 확률의 불행’과 <진아>의 ‘만약 잘못됐을 시’
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런 상황은 혼전 임신을 뜻한다.
성관계 이후에 달라지는 남자의 태도는 비난받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
지지만, 태도가 달라지고 난 후 닥치는 임신은 오직 여성의 몫으로 남
게 되는 것이다. <진아>는 혼전 성관계로 인한 여성의 고통에 대한 간
접 경험을 통해, 이것은 남성에게 대한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몸
에서 일어나는 여성만의 불행이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미혼 여성이 임신을 할 경우 출산보다는 낙태⁷⁾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으로는 낙태를 하는 여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
서 낙태는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떠넘겨지고 있다(이숙경,
1999). 결혼제도 안의 성 만을 자연스럽고 합법적인 성규범으로 판단
하기 때문에 결혼제도 밖의 성관계를 통한 임신에 대해서 미혼 여성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

(2) 사랑하면 가능한 혼전 성관계

페미니즘에서 성담론은 구성주의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성적정체성

7) 원영(2006)의 낙태를 경험한 미혼여성의 인터뷰 분석을 보면, 성관계와 임신은 연속적
이고 연결되는 일이지만, 여성들의 경험에서는 성관계와 임신과 낙태에 대해서는 뚜렷
한 구분을 두고 인식을 한다. 그것은 결혼제도 안의 성만을 허용하는 규범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혼 여성의 경우에도 낙태를 하지만 미혼 여성과 같이 비판적이거
나 부정적인 인식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여성이 임신을 했다는 것,
그것은 낙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보다 여성에게 더욱 절실히 다가오는 것은 혼전 임
신 때문에 결혼제도가 행사하는 배타적인 권력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위치에 대한 두
려움과 불안이라고 했다.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과주 : 동녘, 2006), 128~129
쪽.

8) 송명희 『페미니즘과 우리시대의 성담론』에서 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크게 본질주

과 성적 실천들이 자연에 의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고 볼 때에만 비로소 여성해방을 위한 저항과 변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남성의 성이 성의 규범이 되는 것에 반대하며 성의 영역에서도 젠더 불평등과 권력관계가 작용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은 가부장제를 통하여 여성을 성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해 왔다고 본다. 이처럼 성을 비객관적이고 문화의존적인 것으로 파악할 때에 성의 억압과 차별을 불식하고 평등한 성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송명희, 2004).

<애린>사랑하는 연인 사이는 가능하겠지. 요즘에는 좀 더 개방적이니까. 스킨십이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지고 빨리 끝나겠지. 분명히 그럴 거라 생각해.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 왜 그렇게 빠른 시기에 끝났었는지 생각해보면 상대방은 원했는데 내가 그게 허용이 안됐을 때 점점 거리감이 생기지. 그러다가 너 아니면 사람 없나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스킨십이 거의 80~90%차지하지 않나? 몇 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해. 사랑한다면 가능해

<지성>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즐길 수 있을 거 같아. 결혼 전이라도.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안됐어. 예전에는 결혼을 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사회생활 6년 하면서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거 같아. 그게 진실된 거 같아. 내가 그런 감정이 없어서 연애에 실패도 해봤잖아. 헤어져보고.. 할 수 있을 거 같아.

<애린>과 <지성>은 이전의 연애 경험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못

의와 구조주의 두 갈래로 나누었다. 본질주의는 인간의 성을 생물학적 본능이나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객관적이며 내재적이고 고정불변의 것으로 인식하여 성을 과학적 탐구 대상으로 파악한다. 반면, 구성주의는 성과 사회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성은 인간에 내재하는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인간의 성적 정체성, 성적 욕망, 성적 관행들은 고정된 본질이나 본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계망 속에서 어떻게 놓여지는냐에 따라 구성되는 다양성과 특수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한다.

했을 때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나이가 들면서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바뀌어 성적으로 자유로워진 것 같이 보인다. 그 배경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 기든스의 낭만적인 사랑은 남녀평등을 지향하지만 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남성으로 치우쳐진 것이라는 말처럼, 연애 과정에서 혼전 성관계는 ‘보다 진지하게’, ‘결혼할 사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거나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여성이 상대 남성에게 더 의존하게 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집착하게 만든다(이숙경, 1999). 따라서 <애린>과 <지성>의 결론이 연애에 있어 이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여성을 더욱 남성에게 종속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이>만약에 결혼해서 안 맞으면 어떡할 건데? 오히려 결혼 전에 해 보는 게 더 좋을 거란 생각도 들고. 오히려. 괜히 결혼해서 이러니저러니 해서 빨간 줄 하나 끼이는 것 보다는 좀 서로를 알고 결혼하는게 좋지 않을까

<시은>결혼 전까지 지키면 좋지. 만약에 내 남편 될 사람이 아직 슷총각이라 그러면, 근데 난 그런 남자 원치 않아. 난 남자가 놀 줄 아는 사람이 좋거든. 만약에 내가 결혼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나도 그래야겠지. 근데 요즘 솔직히 그런 남자가 어딴거니와 또 그런 남자를 내가 원하지 않아. 난 내가 성에 대해 알고, 약간 개방적인 그런 사람이 내 친구랑 주변을 봐도 결혼하고 문제가 없더라고. 너무 순진한 타입은 오히려 부부관계 트러블이 많더라고.

<지이>와 <시은>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결혼생활에 있어 성관계에 관한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본인들 또한 성에 관해 무지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여성에 대해 성적 무지와 수동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문화속에서 여성들은 성

적으로 자유롭거나, 성에 개방적인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다.

2) 동거에 대한 인식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지 않지만 동거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동거도 결국은 혼전성관계가 유지되는 관계인데, 혼전성관계와 동거를 분리하여 찬 반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억압적인 이중적인 성윤리가 여성 내부에서 작용하는 것과 결혼제도 밖의 성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사회인식을 내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 모두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는 동거가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영>공동체 적인 삶은 추구하고 싶은데 성관계 있는 동거는 결혼 안에 묶이지 않으면, 결혼은 필요악이 맞는 게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때 교칙 같은게 나를 잡아주는 한 부분이었던 것처럼 그런 게 없는 동거는 하룻밤에 지나지 않는 그런게 되지 않을까.. 감정이 사라지면 2년 3년의 사랑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동거도 끝나지 않을까 평생 살거란 생각이 들면 그 동거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을까

<소혜>사실은 별로 안 좋게 생각했거든. 근데 친한 친구 중에 동거하는 애가 있는데 정말 그럴거라 생각을 못했던 애가 동거를 했어. 지금은 둘이 결혼해서 잘 살거든. 그래서 보니까 나쁜거 같지는 않은데 별로 좋지는 않아. 굳이 같이 살아야할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그냥 같이 살아 봐야겠다 그런 이유면 싫은 거 같아. 여자가 손해일거 같아, 사회적 평판이 안 좋으니까. 굳이 살아보지 않아도 나는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나랑 친분 있는 사람이 아니면 좋은 모습으로 안 보이는 거 같아. 난 안 할거야. 동거를 해서 살만큼 좋은 사람이라면 결혼

을 하지, 굳이 동거를 하지는 않을 거 같아

<지성>동거는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 일거 같아. 평판 신경 쓰지. 나중에 나한테 흠이 된다 말이야. 남자도 흠이 되겠지. 나중에 그걸 문제로 삼는 여자라면 은. 근데 보통 여자가 동거 했다 그러면 흠이 되고 남자는 그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차라리 동거 하려면 결혼을 해라 이런 생각..

<원영><소혜><지성>은 동거는 사회적 평판 때문에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인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은 결혼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성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결혼내에서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 평가된다는 점이 그렇다(장필화, 1997). 독신 남성의 성관계는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독신 여성의 성관계는 비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 이중 규범’⁹⁾이 부과된다(장필화, 1989).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인식을 감수하는 동거보다는 결혼을 희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상>동거는 싫어, 그거는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여자한테 안 좋아 아직도 사회적인 인식은 여자한테 안 좋아 동거는 여자에게 손해야.

<도진>동거도 혼전 성관계랑 엮어서 볼 때 여자가 손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 성적인 면으로. 한순간에 그런 걸로 끝나든지 결혼까지 가든간에 그게 그냥 한 순간에 그걸로 끝나든지 결혼까지 가든간에 여자는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들어가는 거 같아. 누가 한다고 그러면 말릴 거

9) 남성의 성매매 경험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여성이 호스트바에 가는 것은 타락한 윤리의 전형으로 취급된다. 즉, 성별에 따라 남성에게는 성적인 자극성이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성은 성적으로 수동적이거나 무성적이어야 한다는 ‘성 이중 규범’이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본성이 상이하고 남성은 본성적으로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때문에 남성은 공식 체계 내의 결혼제도를 통한 충족할 수 없는 성욕구를 혼외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해 비해 좋은 여성, 정숙한 여성은 성적 욕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장필화, 1989).

야.

<진아>동거는 여자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 남자는 자기가 빠져나갈 모든 안전장치가 완비돼있는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에다가 여자는 모든 걸 쏟아 부어야 하는 관계인거 같아. 그게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가 위험부담이 너무 커. 성적인 것도 그렇고, 두 사람관계도 그렇고.

성의 규범을 판단하는 또 다른 축은 성의 행위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하는 점이다(장필화, 1997). <윤상><도진><진아>는 모두 동거는 여성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주로 여성의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억압적인 성윤리를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미혼 여성에게 억압적인 성윤리가 사회전반적인 인식임을 참여자들은 동감하고 있었으며, 결혼을 희망하는 참여자들은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상황은 남성은 배제된 ‘여자의 과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역할 인식

성역할 사회화는 그 사회의 문화가 성별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규정하는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즉 여성과 남성은 각자의 신체적인 차이에 따라 달리 사회화됨으로써 지위와 역할이 달라지며 주로 남성의 역할은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여성의 역할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양옥남, 1994). 성역할 사회화를 통하여 남자나 여자에게 필요한 행위나 태도는 권장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제재를 받게 된다. 즉 무엇이 남성적인 또는 여성적인 자질로서 적합한 것인가에 관한 문화적 기대치가 사회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다(앤더슨 1987). 성

역할 사회화는 출생순간부터 시작되어 평생 동안 지속되며, 한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안에서 이루어진다(임정빈 외, 1997).

기혼여성에게는 전통적으로 아내, 어머니, 주부 등의 기본적인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 결혼생활 구조이다. 전통적인 가족사회는 임신과 출산에 관해서는 선택여부의 문제가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출산선택여부, 입양여부 등에 관한 고민하기 보다는 출산을 결혼 생활의 필수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 내 합의 없는 출산 거부는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1)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인식

민주적 대화가 있는 가족에서는 가족구성원 관계가 평등하며 아울러 결혼과 자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보장 된다. 가정이 새로운 정신을 창조하는 곳이 되고 여성이 모성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결혼에 대한 자유와 결혼한 부부의 자녀출산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조혜정, 1985).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여성들은 결혼하면 출산 또한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육아에 관한 고민을 하기에 앞서 모두 결혼과 출산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하면 역할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참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연주>당연히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난 애기를 되게 좋아하고, 애기가 낳고 싶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기가 좋아. 딸 하나가 좋아. 둘을 키울 자신은 없고, 하나만 잘 키울려고. 난 딸과 친구 같은 사이 있잖아. 정말 쿨한 여성으로 만들고 싶은 게 꿈이야.

<정한>그건 20대 초반 일때 와 생각이 다른데 그때는 당연히 낳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낳기는 낳아야 하는데 한명은 낳아야지.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신문을 봤는데 애 안 키우는 사람이랑 애 키우는 집이랑, 애 키우는 사람은 정말 자금을 못 한 다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 그 애로 인해 내가 할 거 못하고 포기할 것도 있고.. 인생도 되게 달라지지..

<도진>날을거야. 요즘 딩크족 같은 사람들보면 그게 좋냐? 하는 좀 냉소적인 생각. 삼남매에 가운데는 딸을 두고 싶어, 딱 안정적이고. 그 딸에 나를 투여 하는 거 같아. 나는 외동이고 엄한 아버지였어. 자상한 오빠 그리고 나를 누나생각을 애뜻하게 하는 동생. 안정적이면서도 뭔가 그런 구도, 만약에 내가 남자동생 하나라도 있었다라면 이렇게 연애경험 없이 이 20대의 절반을 날렸을까 싶기도 한거야. 아빠도 좀 엄하고 딱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그런거거든.

<도진>은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출산은 여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권리이고 결혼생활에서 아이는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은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아들 딸 아들 순서로 자녀를 낳기를 희망하는데, 이것은 자신에겐 없었던 오빠와 남동생이 딸에게는 있었으면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시은>나는 3명 낳고 싶어. 능력만 되면. 그거는 경제력이 좀 돼야지. 난 낳는다면 3명 정도 낳고 싶어. 애는 낳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를 봐도 임신한 분이 있어, 근데 지금 말을 못해, 지금 9주째인데 남자 부장님이 싫어해, 일하는데 방해된다고. 근데 남자는 임신하지 않잖아. 이미 회사 들어올 때 군대갔다오고 그러면 나라에서 그게 의무라고 하잖아, 근데 여자가 애 낳는 게 의무라고 그렇게는 안 되었잖아. 그렇다고 직장에 탁아시설 자체도 없고, 제도적 받침이 안 되니까 여자들도 꺼려지고, 자꾸 늦어지고, 정말 그렇게 되는 거 같아. 말로는 뭐 출산휴가 유급으로 준다 3개월 뭐 이렇게 해도.. 눈치 보여서 아무도 못써.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 같아

참여자들에게 출산의 선택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모두 출산

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결혼 생활의 ‘필수’요소로서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덧붙여 출산도 선택이 가능한 문제이며, 자녀양육을 희망한다면 ‘입양’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질문을 했을 때 입양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는 않았다.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가족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은>의 경우처럼 사회활동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경우는 출산을 희망하지만 갈등을 겪게 된다. 여성의 결혼과 출산, 육아는 사회생활을 지속시키는데 한계를 느끼게 한다.

결혼을 했지만 출산을 경험하지 못한 여성들에 대해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이해의 폭이 좁고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며, 출산하지 않은 기혼 여성들은 부모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출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아이가 없는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닌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적인 환경으로 여성은 ‘결혼 = 출산’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출산에 대해 여성은 무조건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출산에 있어 여성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있는가를 고민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출산 후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에서 여성의 출산과 경력유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이어서 참여자들의 육아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육아에 관한 인식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건강·성장·학습 등 모든 면에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어머니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해 자녀의 모든 잘못된 결과도 어머니

니 탓이라는 것이다. 보살핌 노동을 실제로 수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어려움은 어머니가 된다는 것, 어머니 일 수행 방법을 아는 것,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 일을 수행하는 것이 서로 다른 과정이라는 점으로 비롯된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중요하고 자연스러우며 만족스러운 활동으로 이상화 된다(Barber & Allen, 1993, 재인용).

자녀출산 및 양육은 한편으로는 가계소득 증대의 필요와 그에 따른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를 독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주체인 여성 취업을 제한하는 모순된 작용을 하고 있다(박수미, 2006). 참여자들 역시 출산에 대해서는 ‘필수’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어머니 역할로 인식되는 ‘보살핌 노동’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인터뷰 동안 갈등과 모순적인 대답이 많았다.

<원영>그 부분에 대해 되게 고민이 되고 있는데 내 생각엔 애를 만약에 낳는다고 그러면 최소한 1년, 할 수 있으면 3년 동안은 붙어있어야 내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인간을 조금이나마 키워낼 수 있는 밑바탕을 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덜렁 몇 개월 출산휴가 받고나서 애랑 떨어져 있을 때 이게 어떤 인간을 내가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이게 되게 겁이 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요즘 애들 되게 폭력적이고 왕따 문제 이런 것들이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럴 때 내가 과연 애를 낳는데 의미가 있느냐 사회적인 의미만으로 애를 낳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어떻게 위험이 될 수 있는 문제야를 양산을 했다고 보면 그런 것 까지 감수하면서 내가 애를 낳아야 하나. 더군다나 남편이 얼마만큼 협조적일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그건 지나보면서 알게 되는 거지만 애를 낳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문제는 내가 결혼을 하는 데 비중을 많이 두면서 그 부분에 까지도 되게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라 정하진 못했어

<지이>할 수 있을 거 같다면 막연한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 아기를 낳으면 부모는 끊임없이 사랑을 줄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하더라. 당연히 그

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이 낳고 나서는?) 돈을 주고 맡기거나 부모님한테 맡기거나.. 준비가 되었냐고 하면 자신이 없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일을 그만 뒀어야 한다는 것은 그게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윤상>아직까지 준비 안됐지. 생각해 본적도 없어. 잘할 자신이 없어요, 모르겠어 아직은 그냥.. 아직 내가 애들 같아서 엄마 될 준비 안 된 거 같은데. 두려워 그건 막연히.. 무서워. 그 상황이 되면 낳을거고, 낳고 싶지만 감당이 힘들 거 같아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야 하나..

<진아>너무 부담스러워. 우리엄마가 나한테 무한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 나한테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걸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그 사랑이 한도 끝도 없다는 걸 나이 들어가면서 더 많이 느끼는 거 같아. 나는 과연 내 자식에게 100분의 1이라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기적이어서 자식한테 그렇게 못할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모성역할은 여성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여성이 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제 사회 심리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모성역할의 선택이 주어져도 자녀양육을 위해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ich, 1976, 재인용). 출산에 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자녀양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에 있어서는 갈등을 겪게 된다. <원영>은 자신이 자녀를 직접 양육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회의 문제아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장도의 심각한 상황까지 추측하며 어머니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것은 성별분업원리에 의해 자녀 양육의 임무를 여성에게 전가하고 ‘모성’을 강조하는 ‘모성이테올로기’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시은>준비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애를 낳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막 준비는 된 거 같지 않아. 요즘은 애 낳기가 좀 무서워.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런 생각 때문에. 솔직히 두려워. 만약에 애가 정말 잘못돼.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거 때문에 요즘 솔직히 애 낳는게 무서워

여성의 노동력 재생산 역할, 즉 자녀출산 양육 및 사회화에 대한 여성의 책임은 현대 산업사회의 성별분업을 정당화 시키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어머니는 항상 자녀 곁에 있어야 하며 그것이 자녀를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남자들이 밖에서 돈벌이를 하는 동안 여자는 집을 지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 관념은 여성의 아동양육 전담이 아동이나 여성에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뿌리가 깊다. 도시의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녀 양육의 문제는 더욱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여성은 더욱 가정에 머물며 양육에 전념하게 되었다(조은, 1985).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다움의 요건에는 모성적 특징인 부드러움 자기소멸(self - effacement) 수동성 감수성 등을 포함시켰고, 힘 단호성 자유 능동성 등의 특징은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제외시켰다. 이러한 모성에 대한 규정은 남성은 아동 양육을 할 수 없고,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갖기 위하여 어머니가 되어야 하며, 여성의 모성다움의 자질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의 능력과 한계를 규정하는 본질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또한 모성이테올로지¹⁰⁾는 미화, 찬양, 신비화의 언어와 행위를 통하여 강화되며 일상생활에서 재생산 된다(Han, 1979).

육아는 여전히 젊은 여성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이며, 출산은

10) 모성 이테올로기관, 여성의 위치는 가정이며 여성의 임무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말한다. 여성의 이런 역할들은 성별 분업이라는 맥락속에서 정당화 된다. 즉, 남녀의 서로 다른 역할은 상호보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입각해서, 결혼한 여성이라면 취업을 했던 안했던 가사노동, 자녀의 양육 및 교육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떠맡게 되는 과정이다(이연정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육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닥치면 해결 될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여성의 고유권한으로 아름답게 인식이 될 수 있지만 육아는 역할 수행의 시작으로 볼 때 당연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가정에서는 남편의 협조와 사회에서 담당하는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가사노동에 관한 인식

가사노동은 인간의 생존과 존속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생산노동의 기본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노동이다. 가사노동은 비교적 비조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가사노동에 임하는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할 때는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지만,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눈에 더 잘 띄는 경향이 있다. 현재까지 가족구조 내에서 가사노동은 여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비교적 다수이므로 여성은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보상보다 부정적 강화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주부를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보는 사회의 인식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여성을 남편에게 경제적·사회적으로 의존하는 존재, 피부양자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가족이나 사회 내에서의 지위를 낮추게 한다. 여성의 일차적인 의무는 가사노동과 모성역할에 있으며 여성은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를 뒷바라지 하는 보조적인 존재로서 가계보조적인 노동력에 불과하다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여성노동을 평가절하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유희정, 1993). 젊은 여

성들은 남성과 똑같이 직장 일을 하는 만큼 가사일도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할 것을 당당히 요구한다. 참여자들은 모두 결혼 후 가사노동에 관해서는 철저히 분담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현재 부모와 거주지가 구분되어 부모가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가사노동을 여성인 참여자가 담당하고 있거나, 형제관계에서 장녀인 참여자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영>나는 딱히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은 따로 없다고 보는데, 그건 동반자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야말로 정말 원하는 건 슬메이트지만 메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속된 의미가 부여된 가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해 줄수 있는 건 인간 대 인간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따듯함이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상호교류나 이렇게 되게 중시하는 거지. 가사일이나 그 사람을 뒷바라지 하는 건 서로 마찬가지로 생각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나도 그 사람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엔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같이 살고 싶지 않을 거 같아. 그렇게 되면 나만 아내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가사에서 봤을 때 둘 다 돈을 번다고 봤을 때 그럼 남편의 역할은 뭐야? 그런 결혼관계는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지 않나 무조건적인 희생을 할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미정>우리 회사 사무장은 자기 부인을 되게 무시해. 자기(사무장)은 한번도 주말에 청소기를 밀거나 그런 거는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막 욕했거든. 아니 우리 아빠도 일주일에 한번은 하는데 그 사무장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해서 얼마나 분노 했든지. 그런 건 용납할 수 없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연주>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내가 다 하지는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설거지는 내가 하지 않을 거야. 당연히 같이 해야지. (네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응, 왜냐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모든 가정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남자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남자가 해줘야지

<소혜>같이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남편이 나보다 일찍 출근을 한다면 오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설거지라든가 그런 거는 하는 거고, 남편이 빨리 퇴근하면 빨래 같은 건 해줄 수 있는 거지, 너는 뭐해 나는 뭐해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상황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지성>난 가사노동은 하기 싫어. 꼭 엄마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요즘에 도우미 아줌마라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 왜냐하면 내 일하기도 바쁘고 애들이랑 눈 맞추면서 놓고 애들이랑 같이 청소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나 혼자 퇴근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침에 준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기 싫어. 그런 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거기 매달려서 그렇게는 못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남편이랑 애들이랑 나랑 좋은 거 보러다니고. 몰라. 아직 환상이지. 환상이지만 나중에 가사에 매달려서 그러기 싫다. 잘못된 건가? 그렇다고 손을 다 떼는건 아니고..

사회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은 가정 일을 소홀히 하는 여성적이지 못한 여성으로, 전업주부는 사회에서 뒤쳐진 ‘능력 없는’ 여성으로 간주된다. <지성>의 경우는 관현악단 단원으로 분주한 연주생활을 하는 자신도 남편도 참여하지 않고 대체인력을 통해 가사노동을 해결하겠다는 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했다. 그러한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식하고 있는 듯 했다. 가사노동은 반드시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인식은 실제 여성의 사회적 노동을 제약하며 취업한 경우에도 여성은 사회생활과 집안일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여성자신에게도 가사노동을 소홀히 했을 경우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

<지이>집안일 같은 거 신물나게 하고 살고, 지금도 시집간 애들보다 내가 더 많이 하는 거 같애. 너무 싫고 어떨 때는.. 지금은 아직 결혼을 안한 입장이고 난 아직 학생인데, 맨날 청소하고 빨래하고 오빠 뒷바라지해야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럼프도 많이 겪는데, (정말? 슬럼프까지?) 많이 겪지. 이 큰집을 보라 청소하고 빨래하

고 오빠 빨래까지 다하고, 쓰레기도 버려야 되잖아. 화장실도 청소해야 되고 모든 걸 치워야 하는 게 나잖아. 그러니까 힘들지, 공부도 같이 해야 되고, 학교일 할 때는 더 힘들었고. 그때는 일도 하고 학교도 다녀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많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할 수 밖에 없는 거 같애. 난 내가 지저분 한게 싫으니까.

<시은>가사노동을 하면 너무 힘들어. 주말에 하잖아. 하루가 가.. 하루가 가.. 옷도 정리하면 3일 뒤에 또 널리고, 설거지는 그거 잠깐하면 바로 한 시간 뒤에 또 쌓이고, 이게 너무 힘든 일인데 솔직히 우리나라 남자가 많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결혼할 애랑은 가사분담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거를 들어줄 수 있을런지 의문이야. 지금 당장 알았어, 해줄게, 하는데 나 혼자 할 자신도 없어. 일하면서 내가 슈퍼우먼도 아니고, 난 슈퍼우먼 못돼. 그런 거지.. 남자들은 돈 벌어서 주는데 그까짓 거 못하나 이런 생각이잖아. 그래 돈 버는 거 힘들어. 그래,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사회적으로..고쳐지기가..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하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 같은데, 고쳐지기도 힘든 거 같아. 남자들이 바뀌는 거 밖에 없는데..

<지이>는 오빠와 거주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전혀 가사노동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 했다. 대학원 재학 당시 학업, 일, 가사노동으로 인해 슬럼프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오빠가 가사분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시은>의 부모님은 서울근교에 거주하며, 부모님과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형제들과 지내고 있었다. 장녀라는 역할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 때문에 가사노동에 있어 <시은>이 담당하는 비중이 크고, 교제중인 남자친구와 결혼 후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남성에게 적극적으로 가사분담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사분담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되지만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의 남성은 여성에게 적용되는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만큼 비중이 크지 않다. 미혼여성들에게도 가사노동은

자발적 참여가 아닌 체념적 수용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의 가정에서 행하여지는 가사노동은 경제적인 보상이 없으며, 문화적으로는 비하된다. <시은>의 남자친구처럼 남성들 또한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남성은 부役に 들어가면 안된다는 고정관념, 남자는 집안일 보다 사회적 성공을 거두어야 하며 바깥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젊은 남성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더디다. 하지만 미혼여성들은 가사분담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들 또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V. 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인식

이 장에서는 결혼을 결심한 여성들의 결혼 비용준비와 성장가정환경의 분위기에서 비롯한 부모의 결혼생활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참여자의 부모 중 아버지는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13명 중 2명이었다. 참여자는 모두 경제력에 초점을 맞추든, 자아실현이든 사회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현재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은 삶을 거부하고 있었기에, 그 반영으로 사회활동은 지속이 되어야한다는 점에 동감하고 있었다.

1. 결혼 비용의 지원 : 자립 혹은 의존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 실질적인 준비가 시작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결혼 비용 마련이다. 13명의 참여자 중 자립적으로 결혼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은 3명이었으며, 10명은 모두 부모에게 의존하겠다고 대답했다. 부모 역시 암묵리에 자녀의 결혼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수영>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부모님께 의존할 생각은 없고, 집도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집에 돈 얼마나 갖다 줬다고. 결혼할

때 혼수 같은 건 침대 외에는 다 중고로 사든지 아니면 저렴한 걸로.

<연주>준비하고 있어. 나는 내가 다 하고 싶어. 한 3천만원이면 되지 않아? 그거는 모을 수 있을 거 같아. 의존할 생각 없어. 부모님은 여력이 되신다면 내 동생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됐어. 나는 여자라서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어쨌든 내 동생보다는 2년이 흘렀으니까. 내가 안 받아도 돼. 나 주실 돈을 동생 주셨으면 좋겠어.

<소혜>난 내가 벌어서. 몇 억을 들어서 가는 게 아니니까 나는 충분히 내가 벌어서 갈거야

<수영><연주><소혜>는 결혼 비용을 자립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수영>은 가정 경제 사정상 자립하겠다고 하였고, <연주>는 본인보다는 동생에게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 <소혜>역시 결혼 비용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립의지를 보였다. 자립으로 결혼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3명의 참여자는 모두 장녀인데, 가족구조 속 형제관계에서 장녀는 동생을 배려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차녀보다는 비교적 인식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원영>결혼 비용이라는 게 지금까지 모아놓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감당한다고 하기엔 힘든 거 같아서 부모님한테 의존이 되겠지. 내가 그 부분에 있어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내가 결혼이라는 걸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고 싶으면 돈 안들이고 내 스타일대로 하고 싶어 둘이서만. 근데 비용 이라는 게 우리 둘만 살 수 있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잔치비용이랑 부대비용 솔직히 말해서 무슨 스튜디오 촬영이나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으면 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부모님한테 불효를 하는 거잖아.. 부모님은 차라리 내가 돈을 쓰는게 낫지 니가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는 게 싫다고 말씀을 하실 거 아니야. 나만 생각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별수 없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

<미정>부모님께 의존할 것 같아. 부모님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 나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래도 과하게 하는 건 안 좋아하지.

<애린>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 준비한 게 없고, 나를 위한 보험이나 저축 그거는 부모님이 건들진 않으실 거 같아. 그건 니꺼니까 니가 번 돈이니까 너만을 위한 돈이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라 그러시고 결혼은 아마 부모님이 시켜주실 거 같아

<정한>내가 지금 회사생활을 하면서 모으는 돈은 결혼할 때 내가 가져갈 비자금이고, 비용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부모님한테 많이 의존하는 편이지.

참여자들은 결혼 비용에 관해서는 부모님께 의존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원영>의 경우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는 결혼비용을 마련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결혼 비용을 마련한 후에 결혼을 하기는 어렵거나 결혼이 늦어진다. 그렇지만 본인의 의지대로 간소한 결혼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결혼 문화적으로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미정><애린><정한>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애린>은 결혼을 위한 준비는 하지 않고 있으며, <정한>은 자신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만 결혼 비용은 부모님께 의존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부모님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자녀들의 결혼 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부모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이다. 미혼여성들은 자신의 결혼의 실질적인 준비에 관해 뚜렷한 주관을 펼치지 못하고 있으며, 철저한 준비와 계획 보다는 부모에게 의존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활동 지속의 당연성

동양사회는 서양사회에 비해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므로 출산과 양육기의 기혼여성이 가정 밖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가임연령기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숙자, 1994). 하지만 참여자들은 결혼 후 사회생활 지속여부에 대해 가부장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았으며 자아실현과 경제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정>남편이 소득이 많아도 내 일을 할 거 같아. 왜냐면 남편이 소득이 많아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혼을 하거나 그랬을 때 집안일만 하다가 사회로 다시 뛰어 들었을 때의 충격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게 나을 거 같아

<미정>은 결혼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해야하는 이유는 이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결혼과 완전히 분리하기 보다는 ‘나도 이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혼 후에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통해 이혼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소혜>남편이 아무리 고소득자라도 내 경제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난 돈을 안 벌고 남편 돈으로 모든 걸 한다면 땀땀하지 못할 거 같아. 기죽을 거 같고 그래서 싫어. 지금 마음은 그래

<지성>100% 난 그거(사회생활) 보장 안해주면 결혼 못해. 나도 한 인간인데 그리고 날 위해 이렇게 투자했는데 시간, 노력, 그런 게 컸잖아. 내가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난 결혼 할 때 조건이 나 사회활동 하는데 적극적인 그런 사람, 날 적극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재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 같아.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적, 심리적 모두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까다롭지

<도진>내 일에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한도까지 올라가고 싶어. 아직은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말단지지만 내가 갈 수 있는데 까지는 여기서 그

만두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자아실현 쪽이야. 내가 결코 허접한 인간이 아니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런 거 같아.

<지성><도진>은 참여자들 중에서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는 여성들이다. 이들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외적인 능력을 중시하였으며 사회활동 지속에 있어서도 남편의 협조를 희망하고 있었다. <지성>은 앞에서 밝혔듯이 재력이 있는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사회활동을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도진>은 남편의 능력이 전제된다면 본인의 사회활동에서 경제력 보다는 자아실현에 비중을 두겠다고 대답하였다.

<진아>경제활동 하기를 바래. 집안에서만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안해 봐서 설불리 얘기하는 건 그럴지만 집안일만 하면 내가 만족을 못할 거 같아. 자아실현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주부는 경제적인 면에서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자신은 집에 ‘남아서’ 가사노동과 육아, 그리고 ‘인간적’ 가치들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 즉 여성이 남편의 경제력과 사회적 활동에 따른 사회적 신분의 자원에 의존하는 대신 남편은 아내의 정서적 자원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조혜정, 1988).

VI. 결론

1. 요약 및 논의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결혼 당사자인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가장이 의사를 종합하여 결혼을 진행하였지만 현대사회에서 중매를 통한 결혼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시 되는 점에서 전통사회의 결혼과 현대사회의 결혼은 차이점이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고학력으로 인한 만혼 증가 추세 속에서도 결혼을 희망하는 고학력 미혼 여성들의 결혼관에 관한 분석을 통한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미혼여성들은 결혼을 자발적인 선택보다는 사회통념이나 주변 환경의 의식화된 영향으로 당위로서 결혼을 인식을 하고 결혼을 희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신 미혼 여성의 삶은 대체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식되어 미혼여성들에게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경험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결혼생활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움의 반증으로 모두 어머니처럼 희생적인 인생에 관해서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성장과정에서 모두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권위와 어머니의 억압적인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가족의 유대관계가 소원하거나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아버지는 여성들의 결혼관에 비판적인 작용을 한다. 배우자 선택에 관해서는 참여자 모두 자신보다 학력은 고학력의 남성을 희망하고 있었으므로, 미혼여성들의 인식에서도 남성이 여

성보다는 학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우월하기를 바라는 심리를 나타내었다. 자신의 목표가 뚜렷하고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참여자들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외적인 조건에 비중을 크게 두는 경향이 강하며, 현재 취업 준비 중이거나 경제적인 안정이 확실히 보장되지 못한 참여자들은 외적인 요소보다 내적으로 자신의 문화관 또는 인생관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과 성역할 부분에서 참여자들은 가장 많은 갈등과 모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전통적인 성인식과 성역할에 따른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성윤리와 성역할에 대해서는 갈등을 겪고 있었다. 혼전성관계에 관해서 찬성을 하지만 동거에 관해서는 모두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적 인식을 인지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성역할 부분에서 임신과 출산을 결혼과 더불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참여자 자신이 양육을 담당하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여성들은 결혼 후 가사노동에 관해서는 철저히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경우와 대체 인력에게 전담시키겠다는 경우, 그리고 일부 참여자들은 여전히 가정 내에서 자신이 가사노동을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사회활동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참여자들 모두가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권 획득과 자아실현을 위해 사회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2. 결혼을 위한 제언

결혼을 선택한 여성들의 결혼관은, 일부 언론이나 대중매체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현재까지의 일상적인 모습을 초월하는 결혼관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연구결과 이러한 특성을 보인 것에는 첫째, 결혼을 통해 형성하게 될 가족에 관한 가치, 가정의 사회적 연속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경제적인 기반을 필요로 한다. 둘째, 가족경험 중에서 부모의 결혼 생활을 통해 본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자신들의 결혼생활은 부모세대와는 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보편적으로 가부장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한국의 가족문화 속에서 참여자들은 비교적 순탄한 성장과정과, 사회적인 변화 사이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한 모순점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 본인들이 가진 가치관은 도외시 할 수 없는 현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미혼여성들이 전통적인 결혼관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혼여성의 결혼관이 전통주의적인 것을 모두 거부할 수 없는 사회의 현실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터뷰 결과 미혼여성들은 결혼에 있어 출산은 당위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에게 집중된 역할 강조와 사회활동 지속과 같은 사회변화 추세 속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모성이데올로기에 대한 변화는 더디다. 즉, 젊은 여성들은 무조건 출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와 사회활동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과, 여성에게 상당부분 책임을 전가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혼관에서 나타나는 모순의 양상은, 사회적인 역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고 여전히 여성들이 이중적인 사회규범을 외면한 채 다수가 선택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로운 결혼관으로 가는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변화하지 않은 이상 결혼율이 감소하는 추세는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결혼을 희망하는 고학력 미혼여성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결혼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혼관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성역할과 같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기혼여성의 취업확대 및 보육정책의 보완이 이루어 진다면 결혼이 여성들의 삶에서 발전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혼여성들 또한 결혼에 있어 비현실적인 기대와 동경,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의존성을 지양하고, 모순적인 요소들에 대한 개념 정리와 자신의 능력에 기반을 둔 주체성의 확립이 결혼관에 요구된다.

본 연구는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여성만을 인터뷰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으므로,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인식과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며, 전체 미혼여성들의 결혼관으로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혼률 감소와 독신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 강세영 옮김. 『가부장제의 창조』, 서울 : 당대, 2004.
- 곽삼근 외. 『일상의 여성학』, 서울 : 전영사, 2001.
- 김미숙.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 학지사, 2002.
- 김양희. 『한국가족의 갈등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출판부, 1993.
- 김정옥. 『결혼과 가족』, 서울 : 신정, 2004.
- 김태현 외. 『사회변화와 결혼』, 서울 : 성신여대출판부, 2002.
- 나임윤경. 『여자의 탄생』, 서울 : 웅진, 2005.
- 또 하나의 문화. 제17호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문숙재 옮김. 『가사노동의 사회학』, 서울 : 신광출판사, 1990.
- 문숙재. 『현대사회와 가정』, 서울 : 교문사, 2001.
- 박수선. 『결혼에세이』, 서울 : 민맥출판사, 1990.
- 박숙자 외. 『가족과 성의 사회학』, 서울 : 사회비평사, 1995.
- 박호강 외. 『현대사회의 성, 결혼, 가족』, 대구 : 대구대출판부, 1999.
- 서병숙. 『결혼과 가족』, 서울 : 교문사, 1998.
- 심영희 외. 『모성의 담론과 현실』, 서울 : 나남, 1999.
- 송명희. 『섹슈얼리티 · 젠더 · 페미니즘』, 서울 : 푸른사상, 2000.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여성과 한국사회』, 이효재, 양옥남, 이광자, 유희정, 박민자, 문소정 편,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1994.
- 우에노치즈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서울 : 도서출판 녹두, 1994.

- 유희정 옮김. 『가부장제 이론』, 서울 : 이화여대출판부, 1996
- 윤근섭. 『여성과 현대사회』, 서울 : 문음사, 1999.
- 이광규. 『한국의 가족과 종족』, 대우학술총서, 서울 : 민음사, 1990.
- 이동원 외. 『대중매체와 가족』, 서울 : 양서원, 2000.
- 이득재. 『가부장 제국속의 여자들』, 서울 : 문화과학사, 2004.
- 이소영 옮김. 『페미니즘 사상』, 서울 : 한신, 1995.
- 이온죽. 『여성 가족 사회』, 서울 : 세영사, 1999.
- 이정우. 『현대결혼과 가족문화』, 서울 : 숙명여대출판부, 2003.
- 이태숙. 『문화와 섹슈얼리티』, 서울 : 예림기획, 2004.
- 이혜숙. 『여성과 사회』, 진주 : 경상대출판부, 2005.
- 이효재. 『한국 가부장제와 여성』, 서울 : 한국여성연구소, 1996.
- 임정빈 외. 『성역할과 여성』, 서울 : 학지사, 1997.
- 장미경. 『페미니즘의 이론과 정치』, 서울 : 문화과학사, 1999.
-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서울 : 일지사, 1997.
- 장필화. 『여성 몸 성』,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1999.
- 전병재 외. 『위기에 선 가족』, 서울 : 다산출판사, 1994.
- 정옥분 외.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 시그마 프레스, 2005.
- 조미영. 『여성과 가족』, 서울 : 유평출판사, 2005.
- 조성숙. 『어머니라는 이데올로기』, 서울 : 한울, 2002
- 조주현. 『여성정체성의 정치학』,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2000.
-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8.
- 최신덕. 『결혼과 가족』, 서울 : 이화여대출판부, 1978.
- 크리스토퍼 래쉬. 『여성과 일상생활』, 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04.
-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 조주현, 한설아, 조영미,
이숙경 편, 서울 : 동녘, 2006.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원영 편, 서울 : 동
녘, 2001.

한국여성연구소. 『새 여성학 강의』, 서울 : 동녘, 2005.

허혜경 외. 『현대사회와 여성의 이해』, 서울 : 민음사, 2005.

- 논문 -

김경신 외.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조건 및 관련 요인 분석”, 家政科
學研究, Vol.5, 1995.

_____.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과
학회지, Vol.1 1998.

강신미. “여대생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家政大論集, Vol 4, 1985.

김성례.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
화인류학, 2002.

김양희 외. “미혼 남녀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Vol.17,
2003.

김정석.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2006.

맹영임. “중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
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No 1, 2001.

문현숙 외.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
권.

문혜숙 외.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및 성태도에 관한 연구”,
長安論叢, Vol.16 No.1, 1996.

박민자. “사회학에서의 가족 연구”, 가족학논집 Vol 5, 1993.

- 박수미. “일하는 엄마와 저출산”, 젠더리뷰, 한국여성개발원, 2006.
- 박용욱. “조선태종조 처첩분별고”, 한국사회학 Vol 14, 1976.
- 박혜경.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결혼과 사랑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동수. “여성주의 주체성에 관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해석”,
한국사회과학, 1999.
- 이연정.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 여성과 사회, 한국여성연구소,
1999.
- 이영자. “한국사회의 가족주의와 페미니즘”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 인식 제23권 3호, 1999.
- 이재경. “자출산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평” 젠더리뷰, 한국여성개발원,
2006.
- 이희옥. “미혼딸과 어머니의 결혼의식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
문, 2003.
- 이희재. “한국전통혼례의 윤리적 평가” 인문과학 3권 , 1997.
- 임선영. “결혼준비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장진경.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005.
- 장필화. “결혼제도와 성”, 한국여성학, Vol 13, No.2, 1997.
- _____. “성에 관련한 여성해방론의 이해와 문제”, 한국여성학 Vol 5,
No 1, 1989.
- 정대현. “여성문제의 성격과 여성학”, 한국여성학 Vol 1, No 1, 1985.
- 조은. “가사 및 경제활동에 대한 태도와 실태”, 중산층 여성과 문화지
체, 유네스코위원회, 1985.

채민정 외. “여성의 결혼사회화, 결혼결정과정, 결혼현실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과학논집, Vol 24, 1998.

최규련.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Vol 12, No 2, 1994.

- 외국문헌 -

Chodorow, Nancy.(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oucault, Michel. (1980) The history of Sexuality Volumn I : An
Introduction, New York: Vintage Books.

Foucault, Michel. (1994) "Two Lectures," In Critique and Power:
Recasting the Foucault /Habermas Debate, ed,
Michael Kelly, 17-46, Cambridge : The MIT
Press.

Friedan, B. (1963) The Feminine Mystique, N.Y. : Norton.

Giddens, Anthony.(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London : Polity Press.

Gilligan, Carol.(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Han, Sang Jin.(1979) "Ideology - Critique and Social Science :
The Use of Discursive Metho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Sociology, ed. S. Mcnall,
NewYork : St. Martin's Press.

Haraway, Donna.(1991) "A Cyborg Manifesto: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 Feminis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In Simians,
Cyborgs, and Womens: The Reinvention of
Nature,149-182, New York : Routledge.

Hartman, H., (1976)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 Toward A More Progressive
Union", in L. Sarget & H. Hartman,
Women and Revolution, Boston : Southend
Press.

Mackinnon, Catharine A. (1982) "Feminism, Marxism, Method, and
the State : An Agenda for Theory," signs 7(3).

Walby, S (1986) Patriarchy at work, Cambridge : polity.

인터넷 자료

엠포스 뉴스 [http:// news. empas.com](http://news.empas.com)

“대졸여성 미혼율 고졸여성의 2배”

네이버 뉴스 [http:// news. naver.com](http://news.naver.com)

“백마 탄 왕자 만나 육아·가사부담 없이 살고파

신문 자료

동아일보 2006년 3월 23일자 “미혼남녀의 결혼관”

ABSTRACT

A Study on the Contradiction of subjectivity Revealed on view of marriage of highly-educated unmarried women

Ryu Yeunhee

Departement of Women's studie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creasing academic standard and social activity of women, late marriage has been appeared by changing perspective. For these reasons, women's age at first marriage and a number of single women have risen recently.

This study shows the view of women who graduated from university. The main subject of this study classifies into three theme. First, do women hope to marriage by only their own choice or compulsion? Second, are they intending to change their life style after marriage? or does the inherent patriarchy have an effect on their view of marriage? Third, do they hope to sustain their social activity even after marriage? and what element has an effect on unmarried women's view of marriage?

Thirteen unmarried women among those who hope to be married were interviewed for this study and the interview had taken random questions.

The following results were revealed.

a. Unmarried women' choice of marriage have been forced by perception that marriage is just one of the step in one' life and social cultural context of view of marriage.

b. Unmarried women are fettered by traditional concept of gender and are having double sex consciousness.

c. Even though they justly accept to give birth, they have never thought about raising children. Beside, they have thought that caring children is a kind of burden.

d. Some of respondents have received household unavoidably. However, they have strongly demanded for sharing household after marriage.

e. Furthermore, they responded that they hope to maintain their work, even after marriage, to have right on economy and to achieve their own aim.

f. The traditional family system has an strong effect on unmarried women's view of marriage. Most of respondents, having mixed-emotion at their mother, refuse to repeat a self-sacrificed life like their mother.

g. Women, who have grown up under the traditional family, have negative notion about their parents. Accordingly, father ,who is

very masterful and undomestic, make their daughter have negative perspective of marriage.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should set a policy which could help unmarried women to maintain both social activity and household. And people should throw their view of traditional women's Gender-roll away. Likewise, unmarried women need to consider more seriously than have a haze of illusion about marriage.

고
학
력
미
혼
여
성
의
결
혼
관
에
나
타
난
주
체
성
모
순
의
양
상
연
구

류
연
희